

고시기획

www.gosiplan.com

NEWS

2020 박문각 공무원 합격전략 설명회
합격목표 달성을 위한 시작!

8월 17일(토) 오후 2시 남부본원 302호

2019년 지방직 9급 평균 합격선 '하락'

9급 일반행정 합격선 지난해 361.03점→350.78점으로 낮아져

[2018~2019년 지방직 9급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선]		
지역	2018년 합격선	2019년 합격선(최고점)
서울시	396.76점 (양성평등 395.98점)	372.03점
경기도	361.98점 (고양시 380.09점)	346.74점 (양주시, 362.63점)
인천시	358.28점 (개양구, 375.88점)	322.33점 (인천광역시, 346.17점)
대전시	369.96점	364.6점
대구시	368.64점	363.18점
광주시	367점	360.68점
울산시	366.75점	369.87점 (양성평등 367.34점)
부산시	373.57점	370.33점
강원도	339.22점 (춘천시, 370.95점)	335.02점 (춘천시, 364.13점)
충청남도	350.27점 (천안시, 379.88점)	342.49점 (천안시, 352.96점)
충청북도	355.57점 (보은군, 385.27점)	329.95점 (청주시, 356.77점)
경상남도	359.59점 (김해시, 372.77점)	347.66점 (청원시, 366.06점)
경상북도	348.39점 (영천시, 365.54점)	336.3점 (구미시, 경산시 359.81점)
전라남도	346.18 (나주시, 359.58점)	340.08점 (장성군, 357.14점)
전라북도	356.26점 (전라북도, 367.64점)	347.59점 (전주시, 368.18점)
제주도	355.9점 (제주시, 369.01점)	350.46점 (도, 359.44점)
세종시	363.2점	364.07점

2019년 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발표가 마무리됐다.

올해 지방직 9급 일반행정 평균 합격선은 350.78점으로 지난해 361.03점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등 15곳 합격선 하락

9급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선이 전년대비 하락한 지역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이다.

서울시 9급 일반행정 합격선은 지난해 396.76점을 기록했으나 올해 372.03점으로 낮아졌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평균 361.98점에 올해 346.74점으로 15.24점 하락했

다. 참고로 최고점 역시 2018년 고양시가 380.09점을 기록했었으나 올해는 양주시가 362.63점을 기록했다.

인천시 9급 일반행정 평균 합격선은 2018년 358.28점에서 2019년 322.33점으로 대폭 하락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 369.96점→364.6점 ▲대구시 368.64점→363.18점 ▲광주시 367점→360.68점 ▲부산시 373.57점→370.33점으로 각각 낮아졌다.

강원도 9급 일반행정 평균 합격선은 지난해 339.22점에서 올해 335.02점으로 하락했다.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한 지역은 춘천시로 2018년 370.95점, 2019년 370.33점을 각각 기록했다.

충청남도 지방직 9급 일반행정 평균 합

격선은 350.27점에서 올해 342.49점으로 낮아졌다.

천안시는 2018년 379.88점, 2019년 352.96점을 기록해 2년 연속 최고 합격선을 나타냈다.

충청북도 9급 일반행정 평균 합격선은 2018년 355.57점에서 2019년 329.85점으로 하락했다.

참고로 올해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한 지역은 청주시로 356.77점이었다.

2019년 경상남도 지방직 9급 일반행정 평균 합격선은 347.66점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합격선 359.59점보다 낮아진 것이다.

올해 경상북도 지방직 9급 일반행정 평균 합격선은 336.3점으로 지난해 348.39점에서 하락했다. 참고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한 지역은 구미시와 경산시로 359.81점이었다.

전라남도 9급 일반행정 평균 합격선은 2018년 346.18점에서 2019년 340.08점으로 낮아졌다.

전라북도 9급 일반행정 평균 합격선 역시 지난해 356.26점에서 올해 347.59점으로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지방직 9급 일반행정 평균 합격선은 2018년 355.9점에서 올해 350.46점으로 낮아졌다.

울산·세종시 합격선 상승

9급 일반행정 필기시험 합격선이 전년대비 상승세를 기록한 지역은 울산시, 세종시 단 2곳 뿐이다.

울산시는 2018년 366.75점을 기록했으나 올해 369.87점으로 높아졌고 세종시 9급 일반행정 합격선은 지난해 363.2점에서 올해 364.07점으로 상승했다.

BOOK info



2020 공무원 기본서

헤더진 영어 출간

더 빠르고, 더 확실한 공무원 영어 합격 전략!

- 핵심 문법을 마인드맵으로 한눈에 정리한 [GRAMMAR MAP]
- 깔끔한 이론 정리와 [POINT], [STUDY More], [PLUS] 등 다양한 학습 요소
- [기출 및 보기 OX]와 단원별 [문제로 실력 기르기]
- 독해 출제유형과 풀이 비법을 담은 [READING MAP]과 입체적인 독해 해설
- 부록 [이디어]과 [주요 생활영어 표현] 별도 수록

QMG 박문각



2020년 공무원 다관왕은

박문각 스파르타

노량진 | 9월 개강반 OPEN

다관왕 선배들이 강추하는
공무원 합격 커리큘럼

QMG 박문각공무원

집중과 자기 통제의 공간
“공부습관을 접어야 한다”

스파르타 PRIMEPASS

노량진학습관



인공지능이 당신의 합격을 지원합니다!



모르는 것을 보완·개인화하는
확인학습 AiPen

QMG 박문각

다음호 고시기획 신문은 8월22일(목) 발행됩니다.

- 명칭 : (주)에듀스파르마인박문각 고시기획신문사
- 등록연월일 : 2014년11월01일
- 제호 : 고시기획
- 간별 : 주간(매주 목요일)
- 인쇄인 : 정희택
- 발행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71
- 대표번호 : 02-824-8385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 … 준비방법은?

각 지자체 현안 · 지원동기 · 자기소개 · 사회이슈 등 정리



▲2018년 서울시 9급 공무원 면접시험장

2019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신규채용이 합격선 발표를 마무리 하며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각 지자체는 면접시험 실시 후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 할 예정이다.

면접시험 기출문제는?

지난해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면접 시험 5분 스피치 주제는 ▲ 자존감이 낮은 본인/친구 관련 경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의견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경험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공직에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공직봉사동기(PSM)와 관련해 설명 하시오.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업무 중 일 가치감을 느끼거나 혹은 느끼지 못한 경험 등이 출제된 바 있다.

개별 질문으로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에 교육목

적으로 4시간 교육을 한 후 20만 원을 줄 경우 받을 것인지 등이 출제됐고 지원 직렬과 연관해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도 물었다.

한편 올해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 일정은 ▲경기도 8월 1~14일 ▲강원도 8월 5~9일 ▲세종시 8월 5~9일 ▲전라남도 8월 5~16일 ▲충청남도 8월 5~21일 ▲대전시 8월 8~13일 ▲제주도 8월 13~14일 ▲울산시 8월 19~22일 ▲대구시 8월 19~26일 ▲부산시 8월 19~30일 ▲서울시 8월 19~9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충청남도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청 면접시험 앞둔 지역은?

서울·경기·대전·대구·충북·경북 면접 실시 예정

[2018~2019년 교육청 9급 공무원 면접시험 기출문제]	
2019년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공직가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공직 생활에 있어 공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중 갑질이 성립되기 위한 3가지 요건은? ▲학교 행정실 근무 중 교원이나 공무직과의 갈등 시 해결방안 ▲교육 행정 필요한 이유 ▲등로 잘못인내 내 잘못이라며 할 경우 대처방안 ▲강명 깊게 읽은 책 ▲경남교육청의 정책방향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제주 디蹲디蹲학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이었다.
2018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및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출발선이 평등한 학교 조성을 위한 정책 ▲교육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 ▲ 공무원 행정절차 설정

2019년 교육청 공무원 신규채용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면접시험을 앞둔 지역은 ▲대전시 8월 13일 ▲대구시 8월 19일 ▲경기도 8월 28일 ▲경상북도 8월 30일 ▲서울시 10월 11일이다.

면접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지원동기 및 사회 이슈 등을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공직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 ▲10억 예산 편성 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20년 뒤의 본인 모습과 외부 모습 ▲52시간 제와 최저임금 인상의 상관관계 ▲핵폐기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 ▲지방의회 조례 제정 절차 ▲ 지원 시의 비전 및 주요과제 등이 제시됐다.

지역별 면접시험 일정은?

한편 올해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 일정은 ▲경기도 8월 1~14일 ▲강원도 8월 5~9일 ▲세종시 8월 5~9일 ▲전라남도 8월 5~16일 ▲충청남도 8월 5~21일 ▲대전시 8월 8~13일 ▲제주도 8월 13~14일 ▲울산시 8월 19~22일 ▲대구시 8월 19~26일 ▲부산시 8월 19~30일 ▲서울시 8월 19~9월 5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올해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을 치른 경기도 시·군별 면접시험 기출문제는 ▲공무원행동강령 조항 ▲주민에 대한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가진 전문성 ▲수원시 관련 정책 ▲님들을 희생한 경험 등이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대전시 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 6대 의무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법규란 ▲국민권의위원회 ▲주말출근강요시 대처 방안 ▲ 옴부즈만 제도란 ▲취소와 철회 차이 등이 출제됐었다.

충청남도 지방직 9급 공무원 면접시험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청 최종 합격자 발표

2019년 교육청 지방공무원 최종 합격자 명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9급 교육행정직(일반) 125명 등의 명단을 발표했다.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8월 9일 충청북도교육청 사랑관에서 실시된다.

제출서류 및 지침들은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이다.

참고로 성적조회는 8월 12일 까지 조회 가능하며 충북 교육청은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단재연수원에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을 실시한다.

전라북도 교육청 직별별 최종 합격자는 ▲9급 교육행정(일반) 149명 ▲9급 사서 9명 ▲9급 일반기계 8명 ▲9급 일반전기 6명 등이다.

임용후보자 등록은 8월 8일까지 실시되므로 기한 내에 접수를 마쳐야 한다.

부산시 교육청도 올해 신규 공무원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임용후보자 등록은 8월 8일 부산시남부교육지원청 1층 대강당에서 본인이 직업 등록해야 한다.

제주도 교육청 공무원 최종 합격자는 ▲9급 교육행정(일반) 77명 ▲9급 사서 2명 ▲9급 운전 4명 등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임용후보자 등록을 8월 12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임용후보자 교육은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울해 광주시 교육청 공무원 최종 합격자는 ▲9급 교육행정(일반) 122명 ▲9급 사서 3명 ▲9급 건축 1명 등 총 134명으로 집계됐다.

박문각 공무원 스파르타 프라임패스

노량진 / 종로 / 강남 / 부산 / 평택 / 양산 / 순천

47년 노하우로 설계된 최상의 학습 시스템



박문각 올패스
무제한 동영상강의



최신 시설의
지정석식 전용학습관



철저한 관리/감독
스파르타 관리시스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최적의 학습 환경 제공

노량진 학습관 02-812-6618	종로 학습관 02-6182-9620	강남 학습관 02-3476-6030	
부산 학습관 051-807-1972	평택 학습관 031-691-1972	양산 학습관 055-388-1972	순천 학습관 061-726-1113

이런 수험생에게 스파르타 프라임패스를 추천합니다



동양상 강의가 좋지만
학습 능률이 떨어졌던 수험생



취업부분의 반복학습과
질서화된 생활관리를 원하는 수험생



정확한 수험정보와
맞춤형 수험전략이 필요한 수험생



자유로운 강사선택과
학습비용 절감을 원하는 수험생

선택 공무원 동영상 강의의 무제한 수강과
미리를 수 없는 관리 시스템의 학습 시너지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QMG 박문각공무원

박문각공무원

합격을 부르는 박문각 AI 확인학습

인공지능이 반영된 박문각 확인학습 시스템으로
빠르게 합격하세요!



전북 9급 신규채용 ‘종료’

2019년 제3회 전라북도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천187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각 직렬별 최종 합격자는 ▲ 8급 간호 77명 ▲9급 일반행정 463명 ▲9급 지방세 33명 ▲9급 사회복지 157명 ▲9급 사서 11

명 ▲9급 전산 12명 ▲9급 일반기계 17명 ▲9급 일반전기 21명 등이다.

임용후보자 등록은 8월8일부터 12일까지 해당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 부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지역인재 9급 경쟁률 5대 1

2019년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평균 경쟁률이 5대 1을 기록했다.

210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1천41명이 접수를 마쳤다. 행정직 평균 경쟁률은 4.3대 1로 ▲일반행정 5대 1 ▲회계 2.4대

1 ▲세무 2.6대 1 ▲관세 3.6대 1 ▲통계 2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번 지역인재 9급 필기시험은 8월17일에 치러지며 합격자 명단은 9월11일에 공고 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경력직 20명 선발

2019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추가 채용 공고문이 발표됐다.

이번 추가 채용은 2개 분야에서 2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 현황은 ▲피해자 심리 5명 ▲외국어 · 안보 수사외국어(통합선발) 15명이다.

원서접수는 8월16일까지 치러지며 1차 시험 일정은 ▲피해

자 심리 실기시험 9월2~25일 ▲외국어 · 안보 수사외국어(통합선발) 번역시험 9월21일 ▲외국어 · 안보 수사외국어(통합선발) 회화시험 9월25~26일 ▲신체 · 체력 · 적성검사 10월1~11일 ▲응시자격 등 심사 11월4~7일 ▲면접시험 11월13~27일 ▲최종 합격자 발표 11월29일 순으로 진행된다.

[2019년 지방직 9급 필기시험 응시율] ⑥ 충청북도 시 · 군거주 응시율 83.3%

[2018~2019년 충청북도 지방직 9급 일반행정 응시율 현황]					
도내거주		시군거주			
지역	2018년	2019년	지역	2018년	2019년
도일관	69.2%	77.3%	충주시	80.7%	65.7%
청주시	70.6%	68.2%	제천시	75.4%	77.1%
보은군	71.2%	76.6%	보은군	87.2%	91.6%
영동군	-	74.5%	옥천군	81.9%	74%
증평군	60%	59.3%	영동군	78.6%	80.2%
진천군	67.4%	77.6%	증평군	82%	80.4%
음성군	79.2%	76.7%	진천군	72.8%	75%
단양군	72.1%	72%	괴산군	84.4%	83%
			음성군	-	78.7%
			단양군	81.4%	83.3%

2019년 충청북도 지방직 9급 일반행정 도내거주 필기시험 평균 응시율은 72.7%를 기록했다.

시군거주 모집 평균 응시율은 83.3%로 나타났다.

도내거주 응시율은 2018년 69.9%에서 올해 72.7%로 상승했다.

지역별 응시율을 살펴보면 전

천군이 77.6%로 가장 높았고 도 일관 응시율이 77.3%로 그 뒤를 이었다.

도내거주 모집 중 응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증평군으로 59.3%를 기록했다.

시군거주 모집 응시율은 2018년 80.4%에서 2019년 83.3%로 상승했다.

국가직 7급 필기시험 장소 공고 임박



▲2018년 국가직 7급 공무원 필기시험장

국가직 7급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이 8월17일에 치러진다.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이번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시험 장소를 공고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8월17일 필기 시험을 치른 뒤 9월17일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 할 예정이다. 향후 채용 일정은 ▲면접시험 10월 19~23일 ▲최종 합격자 발표 11월 1일이다.

한편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은 46.4대 1로 지난해 필기시험을 앞두고 8월9일 사

학했다.

참고로 2019년 국가직 7급 각

직렬별 경쟁률 현황은 ▲일반행

정 85.4대 1 ▲우정사업본부 28.6

대 1 ▲인사조직 435.6대 1 ▲고

용노동 10대 1 ▲교육행정 229.7

대 1 ▲선거행정 118.1대 1 ▲세

무 40.5대 1 ▲관세 98대 1 ▲교

정 30.7대 1 ▲출입국관리 60.9대

1 ▲일반기계 25대 1 등을 기록

했다.

지방직 7급 공무원 원서접수 일정은?

2019년 지방직 7급 공무원 원서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8월9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부산시, 강원도,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

도, 경상북도 등이다.

각 지역별 7급 일반행정직 선발인원은 ▲서울시 125명 ▲대전

시 7명 ▲대구시 12명 ▲광주시 20명 ▲울산시 3명 ▲부산시 15

명 ▲강원도 2명 ▲세종시 3명 ▲충청남도 10명 ▲충청북도 12명

▲전라남도 32명 ▲전라북도 5명

▲경상남도 19명 ▲경상북도 21

명이다.

참고로 제주도는 8월19일부터 21일까지 지방직 7급 공무원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7급 일반행정직 선발예정인원은 5명이다.

어대훈
휴먼 사회복지학

합격은 물론 인간미까지! 필기는 물론 면접까지!

9월 Human 사회복지학 스페셜 기본이론

2019년 9월 4일(수) 개강

수 · 월 14:00~18:30 [2개월 완성]

교재 : 2020 어대훈 휴먼 사회복지학 [다래기획]

- 출제 비중이 높은 휴먼 별표 2개 이상 집중적으로 수업 ⇒ 기본실력 배양!
- 0X모의고사 / 휴먼장학생 시상

9월

기본 이론 → 닥사공 심화이론 → 기출문제 분석특강 → 핵심요약 정리 → 진도별 모의고사 → 실전동형 모의고사 → 법령 특강

Human 선물 증정

휴먼 동기부여노트, L홀더 2종, 포스트잇, 3색 블렌, 형광펜, 컴퓨터용 시안펜

휴먼 기부이벤트

휴먼 장학금 대폭 상향(실강)

1) 실강은 수강생 수 × 5,000원 기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의고사 평균 80~84점 : 도서상품권 30,000원 + 휴먼상장 수여 + 졸과 저녁식사

2) 인강은 수강생 수 × 3,000원 기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의고사 평균 85~89.9점 : 도서상품권 50,000원 + 휴먼상장 수여 + 졸과 저녁식사

모의고사 평균 90~94.9점 : 도서상품권 70,000원 + 휴먼상장 수여 + 졸과 저녁식사

모의고사 평균 95점 이상 : 도서상품권 100,000원 + 휴먼상장 수여 + 졸과 저녁식사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노량진(남부고시)학원 02)815-7819, 3280-9990

합격을 위한 선택 박문각

박문각
스파르타

설명회

2020 박문각 공무원 합격전략 설명회

아직 늦지 않았다! 합격을 위한 시작점!

9월 개강 합격 설명회

분석을 통한 합격에 최적화된

공무원 합격의 시작과 끝

박문각 스파르타
관리 시스템!

| 9/7급 기본이론 종합반
& AI 확인학습



상담서비스
※ 박문각을 검색하세요.

카톡상담

8. 17 [Sat.] 2:00 P.M. 남부 본원 302호

“푸! 짐! 한! 선물과 함께 박문각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예약자 증정 수험가이드북, 2019 기출문제 증정
추첨을 통해 온라인 수강할인권 증정

※ 사은품 이미지는 실제 사은품과 달라질 수 있으며
50,000원 이상 증정품은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할인권



「2019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 채용 총 정리」 ②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강원 각 지역별 응시율 및 필기시험 합격선 현황은?

2019년 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발표가 모두 종료됐다. 17개 지방직 9급 공무원 사회복지직 채용 현황 등 을 총 정리해본다.

*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2019년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채용 현황]				
지역	선발인원	경쟁률	응시율	합격선
서울	218명	16.8대 1	40.8%	325.52점
대전	35명	17.8대 1	62.1%	333.96점
대구	22명	45.09대 1	60.9%	350.92점
광주	118명	8.89대 1	66.15% (양성평등 308.35점)	320.52점
부산	65명	20.92대 1	68.16%	351.95점
울산	17명	23.47대 1	74.9% (양성평등 342.6점)	344.77점

올해 서울시 9급 사회복지직(일반) 채용인원은 218명으로 총 3천653명이 접수를 마쳐 1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필기시험에는 1천484명이 응시해 40.8%의 응시율을 기록했고 실 경쟁률은 6.8대 1로 나타났다.

서울시 9급 사회복지직(일반) 필기시험 합격선은 325.52점을 기록했다.

대전시는 올해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35명을 선발 공고했다.

원서접수 결과 총 625명이 접수를 마쳐 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필기시험 응시율은 62.1%였고 합격선은 333.96점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구시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선발인원은 22명이다.

출원인원은 총 992명으로 45.0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필기시험에는 604명이 응시해 60.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실 경쟁률은 27.5대 1로 낮아졌다.

지난 6월15일 필기시험 실시 결과 합격선은 350.92점을 기록했다.

올해 광주시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채용인원은 총 118명이었다.

원서접수 결과 출원인원은 총 1천49명으로 경쟁률은 8.89대 1로 나타났다. 필기시험에는 694명이 응시해 66.15%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필기시험 실시 결과 합격선은 320.52점(양성평등 308.35점)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부산시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선발인원은 총 65명이다.

출원인원은 1천360명으로 경쟁률은 20.92대 1로 나타났다. 필기시험 응시율은 68.16%를 기록했으며 합격선은 351.95점이다.

울산시는 올해 9급 사회복지직(일반) 17명을 선발 공고했다.

원서접수 결과 399명이 출원해 23.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필기시험 응시율은 74.9%를 기록했고 합격선은 344.77점(양성평등 342.6점)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강원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채용 현황]

지역	선발인원	경쟁률	응시율	합격선
춘천시	4명	24.5대 1	63.92%	325.8점
원주시	9명	18.22대 1	68.71%	332.86점
강릉시	3명	21.33대 1	56.25%	319.11점
동해시	4명	12.25대 1	85.11%	283.53점
태백시	7명	6대 1	78.57%	260.11점
속초시	9명	6대 1	79.25%	241.39점
삼척시	3명	13대 1	68.42%	324.14점
홍천군	4명	9대 1	63.89%	353.57점
영월군	1명	17대 1	70.59%	-
정선군	3명	7대 1	61.9%	350.59점
양구군	1명	11대 1	90.91%	286.3점
고성군	7명	3.57대 1	88%	270.74점
양양군	1명	11대 1	90.91%	293.53점

* 출원인원

강원도는 올해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56명을 선발 공고했다.

지역별 채용인원은 ▲춘천시 4명 ▲원주시 9명 ▲강릉시 3명 ▲동해시 4명 ▲태백시 7명 ▲속초시 9명 ▲삼척시 3명 ▲홍천군 4명 ▲영월군 1명 ▲정선군 3명 ▲양구군 1명 ▲고성군 7명 ▲양양군 1명을 각각 선발했다..

홍천군 4명 ▲영월군 1명 ▲정선군 3명 ▲양구군 1명 ▲고성군 7명 ▲양양군 1명을 각각 선발했다..

* 경쟁률

원서접수 결과 출원인원은 총 631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1.27대 1을 기록했다.

원주시에 164명이 접수를 마쳤으며 춘천시가 9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강릉시 64명 ▲동해시 49명 ▲태백시 42명 ▲속초시 54명 ▲삼척시 39명 ▲홍천군 36명 ▲영월군 17명 ▲정선군 21명 ▲양구군 11명 ▲고성군 25명 ▲양양군 11명이 출원했다.

지역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춘천시가 24.5대 1로 가장 높았다. 각 지역별 경쟁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주시 18.22대 1 ▲강릉시 21.33대 1 ▲동해시 12.25대 1 ▲태백시 6대 1 ▲속초시 6대 1 ▲삼척시 13대 1 ▲홍천군 9대 1 ▲영월군 17대 1 ▲정선군 7대 1 ▲양구군 11대 1 ▲고성군 35.7대 1 ▲양양군 11대 10이다.

* 응시율

필기시험 평균 응시율은 70.56%로 나타났다. 출원인원 625명 중 441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각 지역별 필기시험 응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춘천시 63.92% ▲원주시 68.71% ▲강릉시 56.25% ▲동해시 85.11% ▲태백시 78.57% ▲속초시 79.25% ▲삼척시 68.42% ▲홍천군 63.89% ▲영월군 70.59% ▲정선군 61.9% ▲양구군 90.91% ▲고성군 88% ▲양양군 90.91%를 각각 기록했다.

* 합격선

2019년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일반) 필기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영월군에서는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홍천군이 353.57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다.

각 지역별 필기시험 합격선은 ▲춘천시 328.5점 ▲원주시 332.86점 ▲강릉시 319.11점 ▲동해시 283.53점 ▲태백시 260.11점 ▲속초시 241.39점 ▲삼척시 324.14점 ▲정선군 350.59점 ▲양구군 286.3점 ▲고성군 270.74점 ▲양양군 293.53점이다.

대학편입 합격의 기준, 박문각편입학원

합격 전략 설명회

실전 대비
120일 완성

D-4개월 인서울 편입 합격으로의 길!
박문각편입 설명회에서 합격의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1차 - 인문계열 설명회

8월 21일(수) 오후 3시

장소: 박문각편입학원 본관
(신분당선 강남역 4번 출구 미왕빌딩 5층)

2차 - 자연계열 설명회

8월 23일(금) 오후 3시

장소: 박문각편입학원 본관
(신분당선 강남역 4번 출구 미왕빌딩 5층)

설명회 참석자 전원 특별 혜택

9월 학원 영어, 수학 종합반 수강료 할인 + 이룸패스 3만원 추가 할인 + 적중 체크북
추첨 특별 혜택, 2018년 편입영어 기출문제 해설집(5명)

*설명회 당일 9~10월 동시 등록 시 첫 달 9월 100% 할인 적용 (신규 수강생) / 설명회 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할인쿠폰 문자 발송

일행 / 교행 / 회계 / 세무 / 관세 / 감사 / 교정 / 검찰 / 출입국 / 외무영사 / 전산직 / 선관위 / 고용노동부

박문각 7급 팀 이론종합반

수많은 선배 합격생들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남부 7급의
검증된 교수진과 학습 시스템으로 합격을 이끌겠습니다.

9월 2일 (월) 개강



행정법 박재인 행정법 유대웅 행정법 박득희 행정법 변원감 국제법/국제정치학 윤경철 회계학 오준석 회계학 신은미 교육학 오현준 교정학 김지훈 형소법 이승준 형법 허문표 전상직 손경희 노동법 김광훈
국어 이유진 국어 전선혜 국어 정체영 영어 김세현 영어 헤더진 한국사 선우빈 한법 조기현 한법/서법 이수천 한법 이만복 경제학 함경백 행정학 신용한 행정학 이경 행정학 이명훈

박문각 7급 팀 합격시스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영어	국어	한국사	한국사	한국법	
09:00~13:00		영어	국어		국제정치학 (09:30~)		
14:00~18:00	행정학	행정학 회계학 (신은미) 소프트웨어	행정법 세법 형법	경제학 행정법 세법 형법	경제학 회계학 (신은미/오준석)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	국제법 (09:30~)	
18:40~22:10	노동법		행정법 (박재인) 형법	행정법 (박재인) 노동법	형사소송법		

* 동영상 제공 : 독어, 불어, 서반어, 중국어, 토익, 교육학, 전산전공(자료구조/데이터베이스), 행정학(신용한), 교정학

* 강의 일정은 학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합반 오기는 개강일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안내됩니다.

7급시험에 최적화된 합격설계 시스템!
남부에서 만나보세요!

! 전용 자습실 제공으로 개인 학습 시간에도
강한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의 지도로 공부의 방향이 잡혔다면
그 다음에는 절대 공부시간의 투자 쌓임입니다.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저녁 시간대에 전용 자습실을
제공함으로써 서로간 페이스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 매주 진도별 테스트를 통해 복습과
문제 적용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주간 배운 내용을 테스트를 통해 점검하고,
취약점을 분석 및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 담임 멘토링 관리와 합격생 간담회를 통해
수험생들의 노하우를 빠르게 익힐니다.
의지만큼 실천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담임제를 통한 매일 출결관리, 1:1 멘토링 상담 뿐만
아니라 합격생 간담회 등을 통해 선배 합격생들의
수험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9월 종합반 EVENT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통 3과목! 교재 부담

ZERO
(선착순)

종합반 수강료 할인

50%
(~8/12일 까지)



「2019년 지방직 9급 시험」 국어(C책형) 기출문제 해설(8)

| 이유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쳐져서 사라져야 할 사양 산업이 아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식량 및 에너지 등 자원 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본주의의 가치를 앞세우고 농업 브네상스 시대의 계연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이 터널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농업은 자원 순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땅의 생산력에 기초해 한계적 노동력을 고용하는 지역(地緣) 산업인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적인 생명 산업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 모른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하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 ①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용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 할 필요가 있다.
- ②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 비해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 할 수 있다.
- ③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④ 고도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향하였다.

[정답] ①

[출제영역]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해설] 다음 글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용성을 높이고,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효율성만을 중시해온 '유목민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해야 한다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② 둘째 문단에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반면,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오늘날 주목할 만하다는 내용을 통해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둘째 문단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로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효율성을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 즉 '유목민적 태도'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첫째 문단에 고도성장 과정에서 한국 농업이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했다는 부분을 통해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규정한 것이라면, 충(忠)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이자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순응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다음을 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仁)의 근본이다."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물뿐이고 신분 사회의 엄격한 상하 관계까지 포함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 서 뻗어진 관계로 본다.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①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일차적 인간관계이다.
- ②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
- ③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이다.
- ④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다.

[정답] ③

[출제영역]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해설] 넷째 문단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효(孝)는 자연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지만, 임금과 신하의 관계인 충(忠)은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 맺어진 관계로 본다고 말한다. 따라서 의리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교적 윤리는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서 '효를 봉건 가부장제 사회 유습이라고 오해'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넷째 문단에서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글쓴이는 말한다.
- ② 셋째 문단에서 유교에서는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글쓴이는 효(孝)가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셋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효는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인 충보다 우선시된다고 말한다. 또한 종족 윤리의 기본인 연장자에 대한 예우가 신분 사회의 상하 관계로 연결된다고 본다. 따라서 충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은 글쓴이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유진 우월한 국어

변화하는 공시 국어!
이유진 국어가 답이다!

**09.04 개강
우월한국어**

문법규정+문학+어휘한자

수 14:00~18:00

교재 : 2020 우월한 문법규정(박문각 펴)
2020 우월한 독해(박문각 펴)
2020 우월한 어휘한자(박문각 펴)

**09.07 개강
우월한국어(N수용)**

문학+어휘한자+문법의 단권화

수 14:00~18:00
금 09:00~13:00

교재 : 2020 문법의 단권화(박문각 펴)
(우월한 문법을 이론으로 대체 가능)
2020 우월한 독해박문각 펴
2020 우월한 어휘한자(박문각 펴)

**09.05 개강
별밤 국어 스터디**

18:40~21:00

교재 : 주간 워크북 세종

**09.07 개강
독해플러스**

7:30~08:40

교재 : 프린트 세종



합격기준! 박문각 공무원!

초시생을 위한 2개월, 박문각 9급 기본종합반

공무원
진짜
출석만 해도

0 원

박문각 9급 최초
환급반 개설!

박문각 9급 기본종합반 환급반 / 노량진 캠퍼스

9월 2일 (월) 개강



합격으로 검증된 박문각 공무원!

0원으로 부담 없이
공무원 START!

수험생활 첫걸음의 부담을 확~ 줄여드립니다.

박문각 9월
종합반 강좌
EVENT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교재 부담

ZERO

공통 3과목!

[선착순]

수강료

50%

할인

[~8/12일 까지]



「2019년 서울시 9급」 영어(A책형) 기출문제 해설(2)

| 헤더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05.

To imagine that there are concrete patterns to past events, which can provide _____ for our lives and decisions, is to project on to history a hope for a certainty which it cannot fulfill.

- ① hallucinations
- ② templates
- ③ inquiries
- ④ commotion

[정답] ②

[해석]

project on 투영하다, 영사하다
template 견본, 본보기; 형판(形板)

hallucination 환각

inquiry 조사; 문의 commotion 동요, 소란

[해석]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패턴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결정을 위한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것이 이행할 수 없는 현실성에 대한 희망을 역사에 투영하는 것이다.

06.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은?

- ① A: What was the movie like on Saturday?
B: Great. I really enjoyed it.
- ② A: Hello. I'd like to have some shirts pressed.
B: Yes, how soon will you need them?
- ③ A: Would you like a single or a double room?
B: Oh, it's just for me, so a single is fine.
- ④ A: What time is the next flight to Boston?
B: It will take about 45 minutes to get to Boston.

[정답] ④

[해석]

① A: 토요일에 영화 어땠어요?
B: 좋았어요.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② A: 안녕하세요. 서츠 몇 벌 디리질하고 싶어서요.
B: 네, 얼마나 빨리 필요하시죠?

③ A: 싱글 룸이 좋으세요, 더블 룸이 좋으세요?
B: 오, 저만 쓸 거라서요, 싱글 룸이 좋겠네요.

④ A: 보스턴으로 가는 다음 비행기가 몇 시인가요?
B: 보스턴에 도착하는데 약 45분이 걸릴 예정입니다.

[어구]

press (다리미 등으로) 눌러 폐다; 누르다, 압착하다
it takes ~ to + 동사원형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10)

07.

Inventor Elias Howe attributed the discovery of the sewing machine ① for a dream ② in which he was captured by cannibals. He noticed as they danced around him ③ that there were holes at the tips of spears, and he realized this was the design feature he needed ④ to solve his problem.

[정답] ①

[해석]

① 동사 attribute와 호응하는 전치사는 to로 'attribute A to B(A를 B의 탓으로 돌리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전치사 for를 'to'로 바꿔야 한다.

② dream을 선행사로 삼아 '전치사+관계대명사'로 이어진 절이 dream을 수식하고 있다. in which에 이어 완전한 절이 이어져야 하는데, 3형식 문장의 수동태로 올바르게 표현되었다.

③ 'as they danced around him'은 삽입 부사절이므로 that은 타동사 noticed의 목적어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뒤에 유도부사 there가 이끄는 1형식 완전한 문장이 이어졌으므로 올바른 표현이다.

④ 타동사 needed의 목적어로 to부정사가 올바르게 이어졌다.

[해석]

발명가인 Elias Howe는 재봉틀의 발견을 그가 식인종에 의해 잡혔던 꿈 덕분으로 어긴다. 그는 식인종들이 그 주변에서 춤을 출 때 창의 끝 부분에 구멍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것이 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디자인 구조라는 것을 깨달았다.

08.

By 1955 Nikita Khrushchev ① had been emerged as Stalin's successor in the USSR, and he ② embarked on a policy of "peaceful coexistence" ③ whereby East and West ④ were to continue their competition, but in a less confrontational manner.

[정답] ①

[해석]

① emerge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had emerged'로 바꿔야 한다.

② '~을 작수하다, 시작하다'의 표현으로 과거사실에 대한 표현이므로 과거동사로 올바르게 표현되었다.

③ 격식을 갖춘 관계부사의 표현으로 'by which'와 같은 의미이다. 뒤에 완전한 절이 올바르게 이어졌다.

④ 'be to+동사원형'의 구조로 주어가 East and West이므로 복수로 수일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고, 문맥상 'to continue~'는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예상'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해석]

1955년에 니키타 흐루시초프는 소련에서 스탈린의 후계자로서 등장했고, 그는 동서양이 경쟁을 계속 이어가지만, 덜 대립하는 방식인 '평화 공존' 정책에 착수했다.

09.

Squid, octopuses, and cuttlefish are all ① types of cephalopods. ② Each of these animals has special cells under its skin that ③ contains pigment, a colored liquid. A cephalopod can move these cells toward or away from its skin. This allows it ④ to change the pattern and color of its appearance.

[정답] ③

[해석]

③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이므로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켜야 한다. 선행사가 문맥상 바로 앞에 위치한 명사 skin이 아니라 under its skin의 수식을 받는 special cells이므로 복수동사이 'contain'으로 바꿔야 한다.

① all의 현장을 받고 있으므로 type은 셀 수 있는 명사이므로 복수형으로 올바르게 표현되었다.

② 문장 전체의 주어로 이어지는 동사 has와 수일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동물들의 각각'의 의미이다.

④ 불완전타동사 allow와 호응하는 목적보어로 to부정사가 올바르게 있다.

[해석]

오징어, 문어, 갑오징어는 모든 종류의 두족류이다. 이 동물들 각각은 피부 아래에 착색용액인 색소를 험유한 특별한 세포를 지닌다. 두족류는 이 세포들을 앞으로 피부로부터 앞으로 혹은 멀리 이동시킬 수 있다. 이는 두족류가 외관의 무늬와 색을 바꾸게 할 수 있다.

2020 박문각 공무원 기본서

최신 출제경향을 완벽 반영한
최적의 공무원 마스터북



- 2020 이유진 국어(3종)
- 2020 전 선혜 국어
- 2020 노범석 해법국사
- 2020 현창원 한국사
- 2020 손재석 영어
- 2020 헤더진 영어
- 2020 유대웅 행정법총론
- 2020 이명훈 Hi-Pass 행정학
- 2020 이경 Jump 행정학
- 2020 장수원 사회



「2019년 서울시 9급」 한국사(A책형) 기출문제 해설(3)

| 노범석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08. 고려시대 불교계의 동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백련결사를 제창한 요세는 침회와 수행에 중점을 두는 등 복잡한 이론보다 종교적 실천을 강조했다.
- ② 재조대장경은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던 대장경 판목이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버렸기 때문에 무신집권기에 다시 만든 것이다.
- ③ 각훈은 삼국시대 아래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고승전』을 지었다.
- ④ 지눌은 깨달음과 더불어 실천을 강조하는 돈오점수를 주장했다.

[정답] ②

[출제영역] 고려시대 불교

[해설]

②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대장경 판목은 초조대장경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거란의 침입 때 불타 없어졌다.

[오답분석]

① 요세는 백련결사를 제창하여 복잡한 이론보다는 침회와 종교적 실천 등을 강조하였다.

③ 각훈은 삼국시대 아래 고려시대 승려들까지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고승전』을 지었다.

④ 지눌은 깨달음과 실천을 함께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고려시대 불교의 발전, 294~297쪽)

(2019년 필기노트, 불교 사상과 신앙, 58~59쪽)

(2019년 동형 파이널모의고사 10회 7번 / 출제 주제 유사)

09. 〈보기〉에서 밑줄 친 '그'가 활동하던 시대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그가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 노비를 불러 모아 모의하기를, “나라에서 경인, 계사년 이후로 높은 벼슬이 천한 노비에게서 많이 나왔으니,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으라.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어찌 고생만 하면서 채찍 밑에 곤욕을 당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니, 여러 노비들이 모두 그렇게 여겼다.

-『고려사』-

- ① 최종의 9재 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 ② 경주 일대에서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신라부흥운동이 일어났다.
- ③ 정혜상수와 돈오점수를 주장하는 수선결사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소(所)의 거주민은 금, 은, 철 등 광업품이나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여 바치기도 하였다.

[정답] ①

[출제영역] 무신집권기 전반

[해설]

자료의 '그'는 최종현을 제거하려고 모의했던 만적이다. 따라서 무신집권기에 해당하지 않는 시대상황을 고르면 된다.

① 사학 12도는 고려 중기 문종 때 유행하였다. 이후 숙종예종 등 국왕들의 관학 진흥책으로 사학의 위세는 다소 고그려되었으며, 무신집권기 때는 문벌 귀족 세력의 몰락으로 유학 교육이 대폭 축소되었다.

[오답분석]

② 김시마효심의 난 등에 대한 설명으로, 무신집권기에 해당한다.

③ 지눌의 수선사 결사 운동은 무신집권기에 전개 되었다.

④ 고려시대 때는 소(所)에서 광업품이나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무신 집권기의 사회 동요, 229쪽 / 특수 행정 구역, 274쪽 / 불교의 발전, 297쪽 / 유학의 발달, 301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무신 정권기의 사회 동요, 49쪽 / 고려의 신분제도, 56쪽 / 고려의 불교, 58쪽 / 고려 유학의 발달, 60쪽)

(2019년 박문각 파이널모의고사 14회 7번 / 출제 주제 적중)

10. 조선 태종 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섬서를 두어 지폐인 저화를 발행하였다.
- ②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화폐경제를 촉진하였다.
- ③ 지계를 발급하여 토지소유권을 공고히 하였다.
- ④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을 시행하여 조세제도를 개편하였다.

[정답] ①

[출제영역] 태종

[해설]

① 태종 때 사섬서를 설치하여 저화를 발행하였다.

[오답분석]

②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에 발행되었다.

③ 지계는 대한제국 때 발급되었다.

④ 세종 때 시행된 공법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수취 체제의 확립과 문란, 392쪽 / 조선의 경제정책, 401쪽 / 화폐 유통, 510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전세, 77쪽 / 조선의 경제 정책, 79쪽 / 화폐 유통, 102쪽)

(2019년 학끌 교재 227쪽 6번 / 출제 선지 적중)

11. 〈보기〉와 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각 고을에서 공물을 상납하려 할 때 각 관청의 사주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사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그 고을 농민들에게는 자기가 낸 물건 값은 턱없이 높게 쳐서 열 배의 이득을 취하니, 이것은 백성의 피와 땀을 짜내는 것입니다.

-『설조실록』-

① 광해군 시기에 실시하였다.

②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1결당 쌀 12두를 납부하게 하였다.

③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수요품을 구매 납품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

④ 물품 구매와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정답] ③

[출제영역] 대동법

[해설]

〈보기〉는 공납의 폐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⑤ 덕대가 아니라 공인에 대한 설명이다. 덕대는 조선 후기 광산 경영을 담당하던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분석]

⑥ 대동법은 광해군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⑦ 대동법 체제 하에서는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1결당 쌀 12두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⑧ 대동법의 실시로 인하여 공인들의 물품 구매 및 이에 따른 상품 수요의 증가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대동법, 506~507쪽)

(2019년 해법국사 필기노트, 조선 후기 수취 체제, 101쪽)

(2019년 박문각 파이널모의고사 14회 10번 / 출제 주제 적중)

12. 〈보기〉의 토지 개혁안을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를 옳게 짚지은 것은?

< 보기 >

ㄱ. 지금 농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를 얻고,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 즉 역전(閭田)의 법을 시행하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무릇 1여의 토지는 1여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고, 내 땅 네 땅의 구분 없이 오직 여장의 명령만을 따른다. 가을이 되면 무릇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으로 보내어 그 식량을 분배한다. 먼저 국가에 바치는 공세를 제하고, 다음으로 여장의 농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날마다 일한 것을 기록한 장부에 의거하여 여민들에게 분배한다.

ㄴ.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을 헤아려 전(田) 몇 부(負)를 한정하여 1호(戶)의 영업전(永業田)을 삼기를 당나라의 조제(租制)처럼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소유한 자의 것을 줄이거나 빼앗지 않고, 모자라게 소유한 자라고 해서 더 주지 않는다.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배 결(結)이라도 모두 허가하고, 토지가 많아 팔고자 하는 자도 단지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역시 허가한다.

ㄱ ㄴ

① 정약용 이의

② 박지원 유형원

③ 정약용 유형원

④ 이의 박지원

[정답] ①

[출제영역] 조선 후기 실학자들

[해설]

ㄱ의 토지 개혁안을 주장한 학자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토지를 어(閭) 단위로 공동 소유공동 경작해서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자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ㄴ의 토지 개혁안을 주장한 학자는 이의이다. 이의는 영업전이라는 것을 매 호마다 지금하고, 영업전에 대해서는 매매를 금지하고 그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허용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중농주의 실학자들, 560~561쪽)

(2019년 필기노트, 경세치용 학파, 111쪽)

(2018년 고난도 실천모의고사 8회 12번 / 출제 주제 적중)

검색창에서 **박문각올패스**를 검색하세요!

2019 한국우수브랜드 평가대상
 2018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
 KCPBA 2017 한국소비자선호도 1위 브랜드 대상
 헤럴드경제 2017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경영대상
 KSCI 2016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더 커진 혜택, 더 새로워진 2020올패스 탄생

NEW
 2020 신규강의
 제공!

SINCE 1972, 검증된 공무원 합격기준!

박문각 올패스

2020 ALL PASS

2020올패스 3기 **한정판매** 8월 1일 ~ 8월 15일

공무원 합격



신규 교수진 전격 추가

가성비 갑



합격 시 전액 환급

한정 혜택



부담 없는 교재 혜택

2020 합격을 위해
올패스에 모든것을 담았습니다.

“올패스는 다 주니까”

2020 최신강의 AI 제공

기출 문제풀이

기본+심화

모의고사

올패스

단원별 문제풀이

테마특강

동형 모의고사

입문

AI 확인학습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박문각 올패스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합격의 술술, Q&A 비집기(19)

| 전선혜 교수
| 박문각남부강남고시학원
- 선혜국어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jshgotgan

-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의 Q&A 중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정하여, 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기출문제와 연결해 보는 코너입니다.

자음군 단순화

[질문]

'뚫다'와 '읊다'의 중 어떤 것이 자음군 단순화가 된 것인가요?

자음군 단순화가 받침이 두 개인 종성 중

하나가 탈락되어 [ㄱ, ㄴ, ㄷ, ㅌ, ㅁ, ㅂ, ㅇ]

로 발음되는 것이라면, '읊다'는 '읊'이 탈

락하고 'ㅍ'이 남게 되어 자음군 단순화로

설명할 수 없지 않나요?

[국어원 답변]

'읊다'는 [읍파]로 발음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읊'이 탈락하였고, 이를 자음 군 단순화로 기술합니다. '뚫다'는 축약 이 일어나서 [꼰타]로 발음합니다.

[술술술, 이론과 기출 비집기]

자음군 단순화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속하는 개념인데,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되고 다른 하나만 발음되는 것을 말한다. 훑[흑], 밟다[밥 : 때], 넓다[넓파]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질문에서 언급한 '읊다'의 경우는 다른 겹받침들과 달리,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받침 하나가 탈락하면 '읊다'의 형태가 되고, 이제 받침 'ㅍ'을 그대로 발음하는 것 이 아니라 대표음으로 바꾸어 [읍파]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뚫다'의 경우는 [꼰타]로 발음되 면서 음운의 개수는 하나 줄었지만, '읊다'와 같은 탈락이 아니라 축약이 일어난 경우에 해

당한다. 앞 음절의 받침이 'ㅎ, ㅋ, ㅌ'일 경우 뒤 음절의 첫소리 'ㄱ, ㄴ, ㄷ, ㅈ'과 결합하면 [ㅋ, ㅌ, ㅍ, ㅊ]로 축약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 적이기 때문이다.

다음 중 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년 경찰 1차)

① 탈락: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② 첨가: 'ㄴ' 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나 반모음 'ㅓ [ㅓ]'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다.

③ 축약: 유기음화는 'ㅎ'과 'ㄱ, ㄴ, ㄷ, ㅈ' 중 하나가 만날 때 이 두 자음이 하나의 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④ 교체(대치):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ㅌ'의 영향을 받아 'ㅌ'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문제의 답은 1번이다. 자음군 단순화가 탈락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하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SPEED' 영단어 암기(16)

90. sacred

: 신성한(=holy)

▷ A temple is a sacred place.

(사원은 신성한 곳이다.)

91. stock

① 저장, 비축

▷ The country's stocks of coal are getting low.
(그 나라의 석탄 비축량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

② 상품: 재고

▷ Much of the stock was ruined by the heavy rain.
(재고의 대부분이 폭우로 못 쓰게 됐다.)

③ 증권, 주식

▷ Stocks, after all, are getting expensive.
(결국 주가가 오르고 있다.)

④ ~을 들여놓다, 구입하다

▷ They stock all types of shoes.
(그들은 온갖 종류의 신발을 사들여 놓았다..)

92. sense

① 감각, 오감

▷ This dog has a keen sense of smell.
(이 개는 후각이 예민하다.)

② 분별력, 판단력

▷ He is a man of sense.
(그는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③ 의미(=meaning)

▷ In what sense are you using the word?
(당신은 어떤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④ 제정신, 맨 정신

▷ He won't come to his senses.
(그는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⑤ 깨닫다, 알아채다

▷ I sensed that his actions were friendly.
(그의 행동이 우호적임을 깨달았다.)

93. temper

: 기질, 기분, 노여움

▷ She has a sweet temper.

(그녀는 상냥한 성미를 가졌다.)

박문각 인공지능 아이펜



AiPen 전용 앱을 통한 정답제공

AiPen 전용 앱을 통한
테마별 문제풀이 제공

문제풀이 시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나의 취약점 집중공략



AI 확인학습
전용 교재로
**스마트한
수험생활!**

박문각 세무팀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1년 내 합격은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하기에

2개월
종합반

9급
스파르타
회원반

박문각 세무 / 관세 이론 종합반

검증된
박문각 남부
최고 강사진

45년 전통
합격노하우
커리큘럼

교수
직접참여
학습관리

9월 2일(월) 개강

9월 종합반 EVENT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통 3과목! 교재 부담
ZERO
[선착순]

종합반 수강료 할인
50%
(~8/12일 까지)

이유진
국어

전선헤
국어

정채영
국어

김세현
영어

선우빈
한국사

이수천
세법

오준석
회계학

신은미
회계학

구민회
관세법





「2019년 지방직 9급」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해설(4)

| 어대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5.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케인즈주의가 쇠퇴한 직후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한 반면, 영국에서는 신자유주의보다는 제3의 길 노선이 강화되었다.
- ㄴ. 영국 개정구빈법의 원칙 중 하나인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가 최하층 독립 근로자의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ㄷ.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로 평가받는 스판핸드법은 현대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
- ㄹ.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식했으며, 증복 구빈을 없애고 빈민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통해 알맞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① ㄱ, ㄹ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 케인즈주의가 쇠퇴한 직후 미국과 영국 모두 신자유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1979년 영국에서는 보수당의 대처(데처리즘), 1980년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레이건(레이거노믹스)이 집권하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서는 케인즈주의 경제사회정책을 포기하고, 회폐공급을 억제하여 (통화주의정책)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위기가 오일쇼크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이라는 내적 요인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시장의 경쟁력 강화(시장경제의 원리 복원, 시장의 자율성 극대화), 경제성장, 고용증대를 이루기 위해 국가의 개입 축소는 물론 복지지출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인 이사는 의사협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②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④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법령 조문 중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하는 내용(일명 '통암기')으로 강조해준 규정 중 하나로,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1항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②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 ③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요양보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거의 동일한 기출문제가 여러 개 있고 시험 전 마지막 법령특강의 빈출법령 문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틀리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혼동 없이 정답을 찾은 문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2항

18. 사회보장 권리구제에 대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② 국민건강보험법
- ③ 고용보험법
- ④ 국민연금법

[정답] ②

[해설]

▶ 시험 전 마지막 법령특강의 기타 출제예상법령 문제와 지문 4개가 모두 동일하게 출제되어 시간을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었던 문제다.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자활급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자활사업은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등이 해당되나,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공공근로사업은 제외된다.
- ③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 ④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돋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자산행성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틀리게 출제한 문제다. 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등이 해당되며,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공공근로사업도 포함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자활사업)

- ①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직업훈련
 2.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자활근로
 4. 「작업인정법」에 따른 작업인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7. 자활기업의 사업
 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9호에 따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의 내용·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 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그 자원봉사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20.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이다.
- 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ㄷ. 이주배경청소년지원체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 ㄹ.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가출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 법령 규정이 아닌 청소년복지 실천현장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적인 성격을 띠나 공무원 수험생들이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 할 내용이 아니다. 즉, 사회복지학개론 수험서에 수록해야 할 내용이 아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들을 모두 정확히 알고 정답을 찾은 수험생은 사실상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쉽게 말해 누구든 그냥 '검'으로 찍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출제자의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 문제로 해석되며,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정도의 차원에서 4개의 지문을 모두 옳게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일회성 출제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해설은 보기의 지문들로 대신하고자 한다.

2020 소방공무원 합격! 합격점수까지 끝장낸다!

박문각**소방직 단독반****9월 2일 (월) 개강****소방직 단독반 최강 교수진!!**

소방 경력과 실무로 합격을 책임진다!

**소방직 단독반 맞춤 스케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 11:00 전과목 주간 TEST(시간) 11:00 ~ 13:00 실화 영어	심화 영어 심화 한국사	심화 한국사	의무 자습	의무 자습	의무 자습	심화 국어
14:00 ~ 18:00 영어 집중반		심화 국어	심화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법규	자율 자습
14:00 ~ 18:00			의무 자습			

소방직 단독반 수강생만을 위한 특급혜택

소방복습
동영상 제공

소방종합반
전용자습실

소방종합반
사물함 제공

소방종합반
전담 관리제

9월 종합반 EVENT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통 3과목! 교재 부담

ZERO
(선착순)

종합반 수강료 할인

50%
(~8/12일 까지)



「2019년 서울시 9급」 행정법(A책형) 기출문제 해설(1)

| 김진영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I 총평

2019 서울시 지방직 행정법 시험의 난이도는 '중'에 해당한다. 2019 지방직 시험의 난이도와 비슷했다. 지방직 시험이 판례 위주로 출제되었다면 서울시 시험은 판례와 조문, 이론을 적절히 혼합해서 출제하였다. 최신 판례도 지방직 보다는 적게 출제되었다.

2017년 판례는 2지문, 2016년 판례는 4지문이 출제되었다. 판례 문제는 약 12문제, 이론과 조문 문제는 약 8문제 출제되었다.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약 3문제,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약 8문제,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약 9문제 출제되었다. 기출문제의 유형은 약 16문제가 출제되었고, 새로운 문제가 약 4문제 출제되었다. 서울시 시험은 지방직 시험 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 조문 문제는 최근에 다른 직종에서 출제된 문제가 출제되었고, 최근 개정된 조문에서 출제되었다.

[기출문제]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 ②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사람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WTO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③ 위법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답] ③

[해설]

신뢰보호의 원칙은 자기구속의 법리와 달리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위법한 관행과 법률적 합성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가 인급되므로 위법한 관행에 대하여도 신뢰보호가 인정될 수 있다.

- ① 헌법의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인정된다. 추상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은 개별법령의 구체화가 필요하지만 행정법의 법원은 인정된다.
- ②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9.1.30, 2008두17936).
-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위해서는 동종사안, 동일 행정청이어야 한다. 제3자인 행정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0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 ② 행정 각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은 독립 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④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재량준칙이라 한다.

[정답] ②

[해설]

법제처, 국가보훈처와 같은 국무총리 직속 기관은 독립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없다. 이 기관은 총리령을 빌려서 발하게 된다.

- ①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허용되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되었다.
- ③ 행정규칙 자체는 법규명령이 아니지만,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법령보충규칙이 인정된다.
- ④ 재량권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재량준칙이다.

03.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 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 ④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법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정답] ①

[해설]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현재결 2016.4.28, 2012헌마549, 2013헌마866 병합). 옳은 지문이다.

- ②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 급박성을 요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작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절충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대판 2007.10.12., 2006두14476).
- ④ 예산은 일종의 법규법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현재결 2006.4.25, 2006헌마409).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도 9급공무원 시험대비

박문각 합격예측 전국 모의고사

온라인 / 오프라인 동시시행

2019. 8. 18.(일) 10:00

응시직렬

일반행정직 / 교육행정직 / 세무직(세법개론) / 기술직

합격예측 서비스의 효과

전국 45개
고사장

전국 45개 고사장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시험

연간 시행
횟수 12회

매 월 정기시험 시행

누적 접수생
32만명*

32만명의 선배로
결승권 전국 모의고사

매 월 확인하는
합격 가능성

빅데이터 분석으로
매 월 학습 가능성 예측

* 2013.01~2018.07 전국모의고사 9급/군/오프라인 누적접수인원 기준

일도적인 규모와 최고의 교수진이 출제하는 박문각 모의고사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여 빠른 학습 가능
개인위치분석과 학습방향제시로
학습효율을 상승



합
격

박문각 전국 모의고사의 합격 전략 제안

다양한 성적동기로 본인의 정확한 위치파악

과목별 성적비교로 나의 위치 및 강·약점 분석

직렬별 성적비교를 통해 직렬선택 유·불리 예측

영역별 취약점 분석하여 학습 전략 수립

매 월 응시한 모의고사 성적변화 추이분석

시간안배 및 실전감각 출련으로 실수 최소화

QMG
Since 1972, 45년 합격노하우

박문각의 노하우가 합격의 길이다

공무원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아래 QR코드로 친구추가하세요.

공무원 5관왕 합격자 배출!!!

강남스파르타

합격을 위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
(출결에서 학습 컨설팅까지)

8월 등록특전	수강생 혜택
7급 스파르타 6개월 - 260만원 → 230만원 12개월 - 450만원 → 42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리큘럼에 맞춰 학원강의 자유롭게 수강 전과목 전 교수진 강의 무제한 수강 가능한 박문각올패스 제공 전용학습관 제공(1인 1지정석) 영어 Daily 테스트 및 매일 모의고사 합격예측 모의고사 매월 응시
통합설명회	학습관설명회
08.16(금) 15:00 08.21(수) 15:00	08.09(금) 15:00
외무영사직설명회	외무영사직설명회
08.27(화) 15:00	



2020년 공무원 다관왕은

박문각 스파르타

나는 박문각스파르타로
다관왕에 성공했다.



다관왕 선배가 추천하는, 박문각 공무원 스파르타

19년 국가직 / 지방직 모00
필기합격

AI 확인학습과 철저한 스케줄 관리,
빠른 합격도! 다관왕 달성도!
스파르타를 강추합니다~

18년 공무원 5관왕 김00
(9급 국가직/서울시/지방직 7급 국가직/서울시)

반복 테스트와 전문 수험 컨설팅,
다양한 학습자료에 합격생들의 멘토링 등
스파르타를 믿고 하루하루를 보내니,
어느덧 합격 문자가 도착하더라고요!

18년 공무원 3관왕 이00
(9급 국가직/서울시/지방직)

동료 수험생들과의 경쟁을 통한
최고의 학습 분위기~~
갑 오브 갑 가능성비까지!
공무원 합격은 박문각 스파르타죠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 9월 개강반 특별한 혜택

스파르타 '바로시작 패키지'

전용학습관

바로~ 이용



남들보다 먼저~
학습분위기 적응과 학습시스템 파악

박문각클래스

바로~ 수강



선행 학습으로~
학원강의의 빠르고 깊이있는 이해

Daily 테스트

바로~ 체크



엄선된 문제풀이로~
실전문제 경험과 자신의 실력 체크

AiPen (아이펜)

바로~ 제공



심층 각인학습으로~
시험장까지 장기기억 완성

9급 스파르타 커리큘럼

9급 공무원 핵심이론 완성과정

이론완성반

4개월

기본 + 심화 이론완성

1차 선 접수 ~8월 9일 한정 7!

→ 880만원 → 198만원

7급 스파르타 커리큘럼

7급 공무원 핵심이론 완성과정

이론완성반

6개월

기본 + 심화 이론완성

1차 선 접수 ~8월 9일 한정 7!

→ 540만원 → 369만원

2020년 9급 국가직 합격 프리미엄 과정

국가직 합격반

8개월

이론 + 기출 + 실전

1차 선 접수 ~8월 9일 한정 7!

→ 560만원 → 368만원

2020년 7급 국가직 합격 프리미엄 과정

국가직 합격반

12개월

이론 + 기출 + 실전

1차 선 접수 ~8월 9일 한정 7!

→ 1,080만원 → 724만원

2020년 9급합격 종합 프리미엄 과정

2관왕 달성반

10개월

이론 + 기출 + 실전 + 마무리

1차 선 접수 ~8월 9일 한정 7!

→ 700만원 → 435만원

2020년 7급합격 종합 프리미엄 과정

2관왕 달성반

14개월

이론 + 기출 + 실전 + 마무리

1차 선 접수 ~8월 9일 한정 7!

→ 1,260만원 → 795만원



「2019년 서울시 9급 시험」 행정학(A책형) 기출문제 해설(2)

| 이명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04.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정설은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 ② 실체설은 사회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 ③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조정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 ④ 실체설은 사회공동체 내지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정답] ①

[해설]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동체 전체의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보는 공동체설은 공익설에 해당하는 이론이다. ↪ 하이패스 행정학 p131

[핵심체크] 공익에 관한 학설

	의의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하여 선형적·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적·도덕적 실체
공익 실체설 (적극설, 규범설)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규범적·보편적 실체: 정의, 형평, 자연법 등 개별특수이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사회전체로서의 공동선(사회의 보편적 이익) 또는 국가 이익을 공익으로 인식하는 입장 • 사익집합 이상의 공익: 공공재 공급, 공유지의 비극 극복을 위한 규칙, 기본권 등 단순한 사익의 합으로 볼 수 없는 공공이익을 공익으로 인식하는 입장 • 전체효용극대화설(공리주의, 후생경제학): 몇몇 개별 사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대된다면 공익이 증대된 것으로 보는 입장 • 공동체설체설(신비주의적 형이상학적 공동체론): 공동체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고 그 시대의 통치자에 의해 결정된 공동체 스스로의 의지와 욕구를 공익으로 인식하는 입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규범적·선형적 공익관, ② 공익우선주의적 관점(전체주의적·집단주의적 입장), ③ 국가주의적 관점(국민의 덕성을 향상하는 목민적 관점), ④ 엘리트론적 공익관과 합리모형, ⑤ 사법부 판례의 기준(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령), ⑥ 관료가 공익결정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적극설)
공익 과정설 (소극설, 민주적 공익이론)	의의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
	근거	다원주의(이익집단론적 과정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실적(경험적)·절차적(과정적) 공익관, ② 정책과정의 협력화 중시(강한 이익집단에 의해 희생되기 쉬운 약자·대중·미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 대표관료제 도입 강조), ③ 민주적 공익관과 점증모형(자유주의·개인주의·국민주권주의에 근거), ④ 관료가 공익결정에 소극적 역할(소극설)

05. 합리성의 제약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선호
- ② 감정적 요소
- ③ 비용의 과다
- ④ 지식 및 정보의 불완전성

[정답] ①

[해설]

다수 간의 갈등(충돌)되는 가치를 선호할 경우 합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이 제약된다. 반면, 다수 간의 조화된 가치의 선호는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니다. ↪ 하이패스 행정학 p298

[핵심체크] 합리성의 제약요인

결정자에 기인한 원인	•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결정자의 편견 등)
	• 미래예측의 곤란성(결정자의 인지능력상의 한계, 제한된 합리성 등)
	• 관료제의 복잡화(변동에의 저항, 형식주의, 무사안일 등의 관료의 부정적 행태)
	• 권리주의적 사고방식, 이해 부족과 전문지식의 결여, 과거의 경력 등에 의한 선입관

결정구조에 기인한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집권적 구조 • 정책참모기관의 약화 • 정책전담기구의 결여 • 부처할거주의 등 관료제의 역기능 • 행정선례와 표준운영절차의 존중 • 품의제에 입각한 정책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와 목표의 다양성·무형성·유동성 • 이익집단 등 외부 준거집단의 영향력 •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 • 투입기능의 취약성(결정과정의 폐쇄성) • 피동적인 사회문화적 관습의 영향

06.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NPM)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성과중심 정부 실현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③ 책임운영기관은 사무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유형으로 구분된다.
-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정답] ④

[해설]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9년(김대중 정부)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 하이패스 행정학 p455

[핵심체크] 책임운영기관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구분하여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에 인사·예산 등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반면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공공성이 강해 민영화가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설치
배경	신공공관리론
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대처정부의 Next Steps에 의해 최초로 설치 • 미국: 클린턴 정부가 「성과중심정책(PBO)」으로 도입 • 일본: 「독립행정법인」으로 도입 • 우리나라: 국민의 정부에서 도입(1999년)

07.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구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② 의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 ③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 ④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정답] ③

[해설]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행정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외부통제가 무력화됨에 따라 내부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 하이패스 행정학 p199

[핵심체크]

구분	특징
내부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행정국가 및 정치행정일원론에서 중시 •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화된 행정국가에서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방식
외부통제	•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근대입법국가 및 정치행정이원론에서 중시

박문각 최초, 종로학원 단독 런칭!!

2020년 9급 공무원 시험대비

종로 스파르타 평생회원반

스파르타에 평생회원을 더하다.

2020년 대비
9급 공무원

종로스파르타 & 프라임패스 통합 설명회
8월 22(목), 29(목) PM 3:00

9월 2일(월)
개강

합격할 때 까지 합격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 책임지는
박문각의 새로운 100% 합격 관리시스템



학원강의
정규과정



온라인강의
(올패스)



영어중증반
그룹과외



스파르타 전용관
1인 독서실



2020년 기본서
SET



스마트한 학습
꺽펜



X2 강력해진
스파르타 TEST



교수가 학생을 관리
교수담임제



「2019년 지방직 9급 시험」 회계학(A책형) 기출문제 해설(1)

| 신은미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01. 일반목적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기업의 자원을 사용하는 그들의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 ②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③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
- ④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정답] ④

[해설]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으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02.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 ②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③ 검증가능성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는 표현충실성의 특성에 해당한다.
- ④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히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에 해당한다.

[정답] ③

[해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히 표현이 되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 표현충실성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03.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 ② 역사적 원가를 측정기준으로 사용할 때, 자산은 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 ③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 ④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공정가치이다.

[정답] ④

[해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04.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②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재무제표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산, 부채, 자본, 차익과 차손을 포함한 광의의 수익과 비용,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및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한다.

- ④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 결과도 보여준다.

[정답] ②

[해설]

보고기간종료일을 변경하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무제표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보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와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추가 공시한다. 즉,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은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다.

05. (주)한국이 20×1년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 결과 20×1년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각각 50,000, 20,000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회계변경이 (주)한국의 20×1년 기초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기초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① ₩50,000 감소	₩20,000 감소
② ₩50,000 증가	₩20,000 감소
③ ₩50,000 감소	₩30,000 증가
④ 영향 없음	₩30,000 증가

[정답] ④

[해설]

$$\begin{aligned} 1) 20\times 1\text{년 초 기초이익잉여금} &= ₩50,000(20\times 1\text{년 기초재고}) \text{감소} \\ 2) 20\times 1\text{년 당기순이익} &= ₩50,000 \text{증가}(20\times 1\text{년 기초재고}) - ₩20,000 \text{감소}(20\times 1\text{년 기말재고}) \\ &= ₩30,000 \text{증가} \end{aligned}$$

06. 유·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에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전문가의 감정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다.
- ②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 ③ 재평가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할 때 비교표시되는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한다.
- ④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07. (주)한국은 20×1년부터 상품 A(단위당 판매가 ₩100,000, 단위당 매입원가 60,000)의 위탁판매를 시작하면서, 수탁자에게 단위당 ₩10,00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년 (주)한국이 수탁자에게 적송한 상품 A는 100개이며, 적송운임 ₩40,000은 (주)한국이 부담하였다. 수탁자는 이 중 50개를 20×1년에 판매하였다. 20×1년 (주)한국이 상품 A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인식할 당기이익은?

- ① ₩1,460,000
- ② ₩1,480,000
- ③ ₩1,500,000
- ④ ₩2,960,000

[정답] ②

[해설]

$$\begin{aligned} 20\times 1\text{년 당기이익} &= 50개 \times ₩100,000 - (6,040,000 \times 50\%) - (50개 \times ₩10,000) = ₩1,480,000 \end{aligned}$$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박문각 교정직 이론반



교정학
김지훈



형소법
이승준



국어
이유진



영어
손재석



한국사
노범석

9월 2일 (월) 개강

이론 종합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7:20~08:30		아침 영어 프로그램 [하프모의고사]				
09:00~13:00	영어	영어	교정학 (형사정책)	교정학 (교정학)		
14:00~18:00	한국사 (전근대사)	한국사 (전근대사)	국어	국어	형사소송법	
18:40~22:10					형사소송법	

※영어 – 기본이론 / 국어, 한국사, 교정학, 형소법 – 심화이론 ※아침영어 하프모의고사 자율수강 ※한국사(근현대사) 인강제공

2017년부터 교정본부
면접시험 주관으로
전공과목 중요성 UP!

교정학/형소법/ 전공과목 집중학습!
자신있게 추천하는 국어/영어/한국사 필수과목 교수진
기본개념 중심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학습을 통한 기본기 및 실력다지기

9월 종합반 EVENT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통 3과목! 교재 부담
ZERO
[선착순]

종합반 수강료 할인
40%
[~8/12일 까지]

경찰

[2019년 경찰공무원 1차 · 2차 경쟁률 비교] ① 일반(남)

평균 경쟁률 소폭 상승...부산 및 충남 접수 증가

【 2019년 경찰공무원 1차·2차 일반(남) 경쟁률 】				
지역	1차		2차	
	경쟁률	출원인원	경쟁률	출원인원
서울	31대 1	7천166명	40.5대 1	5천192명
부산	62대 1	1천881명	48.5대 1	2천134명
대구	109대 1	1천534명	146대 1	1천28명
인천	43대 1	1천227명	25.4대 1	1천756명
광주	115대 1	923명	57.1대 1	971명
대전	58대 1	883명	48.9대 1	783명
울산	22대 1	1천350명	32.7대 1	1천704명
경기남부	27대 1	6천664명	32.3대 1	5천312명
경기북부	29대 1	2천579명	23.1대 1	4천232명
강원	32대 1	773명	31.5대 1	726명
충북	23대 1	781명	22.8대 1	869명
충남	23대 1	1천792명	27.7대 1	3천720명
전북	65대 1	787명	70.8대 1	567명
전남	57대 1	744명	60.7대 1	486명
경북	61대 1	1천233명	74.7대 1	972명
경남	37대 1	2천540명	48.8대 1	2천2명
제주	11대 1	641명	15.4대 1	1천36명
합계	32.1대 1	3만3천498명	33대 1	3만3천490명

2019년 경찰공무원 일반 2차 경북청, 전남청, 경북청, 경남청, 제주재를 협회가 모두 발표됐다. 척이다.

일반(남) 채용의 평균 경쟁률은 1차 32.1대 1에서 2차 33대 1로 소폭 상승했다.

경쟁률 상승 지역은?	실패보면 ▲울산청 22대 1→32.7대 1 ▲경기남부청 27대 1→32.3대 1 ▲경기북부청 23대 1→23.1대 1 ▲충남청 23대 1→27.7대 1 ▲전북청 23대 1→32.3대 1
2차 시험에서 경쟁률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청, 대구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충남청, 전북청이다.	

청 65대 1→70.8대 1 ▲전남청 57대
1→60.7대 1 ▲경북청 61대 1→74.7
대 1 ▲경남청 37대 1→48.8대 1 ▲
제주청 11대 1→15.4대 1이다

경쟁률 하락 지역청은?
2차 시험 경쟁률이 하락한 지역
청은 부산청, 인천청, 광주청, 대전
청, 강원청, 충북청이다.
부산청은 1차 시험에서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나 2차 시
험 원서접수 결과 48.5대 1로 하락
했다.

인천청 역시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으나 2차 시험에서는 25.4 대 1로 경쟁률이 낮아졌다.
이와 함께 ▲광주청 115대 1~57.1대 1 ▲대전청 58대 1~48.9 대 1 ▲강원청 32대 1~31.5대 1 ▲충북청 23대 1~2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출원인원 큰 변동 없어

올해 경찰공무원 1차 및 2차 채용에서 일반(남) 채용은 평균 경쟁률 및 출원인원에 큰 변화가 없었다.

1차 시험 출원인원은 총 3만3천 498명이었으며 2차 출원인원은 이보다 8명 감소한 3만3천490명으로 집계됐다.

◀ 2019년 시험대비 경찰학개론 1분 문제풀이 ▶

03.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②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 ③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이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 ④ 수임관청이 권한의 위임에서 징수의 당사자기 된다.

04.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 하였던 계급의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제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 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④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등의 임에게 위임할 수 있다

05.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급여는 1/4 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 ②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 ③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보수는 1/3을 감한다.
 - ④ 임용제(체정)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 되기 전에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후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정단 03 ③ 04 ② 05 ③ >



공인노무사 1차시험 출원인원 전년대비 약 1천 7백 명 증가!
이제 전문직 자격증 대세는 공인노무사입니다.

QMG 박문각노무사

www.pmg.co.kr

종로한원 02)734-808

온라인 02)3489-9500

경찰 준비의 시작과 끝! 박문각 경찰이 함께합니다.

박문각 경찰 점수폭발 관리반

기본이론I 반

노량진 유일 과목별 교수 1:1 밀착 관리반!
매일 1과목 몰입학습, 1일 3회독 달성!



고난이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갖추는 방법은 반복학습과 타이트한 관리 뿐입니다.

제대로 된 ‘진짜’ 관리로 합격을 약속드립니다!

7월 8일 [월] 개강 * 전과정반 방학 이벤트 별도 문의!!

선착순 30명 ★특별 할인 혜택★

640,000원

선착순 30명

192,000원

기본이론I 반 (2개월 과정)

640,000원

20% 할인

512,000원

전과정반 (8개월 과정)

2,490,000원

40% 할인

1,494,000원



2018년 경찰채용시험 형법 진도별 문제 및 해설(14)

| 오상훈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43. 카드사용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경찰2차

- ① 타인명의의 현금카드 결용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②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단기카드대출로 현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타인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때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해설]

* 각종 카드사용에 관한 판례정리: 형법 서브노트 118p.

- ① ×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만 성립한다. ∵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신용카드의 본래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힘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오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판 2003.11.14. 2003도397). ★★★

- ② ×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이 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 할 수는 없다(대판 2002.7.12. 2002도2134). ⇨ 기출문제집 보충문제 12.①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작(=절도죄)(대판 2006.7.27. 2006도 3126) ⇨ 기출문제집 기본문제 365.④
-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재물을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7.5.28. 95도997).

- ③ ×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만 성립한다.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2.6.9. 92도77). ⇨ 기출문제집 보충문제 198.④

- ④ ○ : 계좌이체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 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6.12. 2008도2440). ⇨ 기출문제집 기본문제 328.○ 해설
- 이미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점을 아는乙에게 교부한 경우,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재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

유로乙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04.4.16. 2004도 353). ⇨ 기출문제집 기본문제 387.④ 해설

44.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경찰2차

- 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운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운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간이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
- ④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천원합의체). ⇨ 기출문제집 기본문제 375.①, 376.④ ; 전법위모의고사 제18회 01.③

- ⑤ ○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순회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직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이가 그 처분인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1.11. 2006도4498). ⇨ 기출문제집 기본문제 356.④ 해설
- ⑥ × : 매도인의 원인에 경의의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미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소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에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고, 그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행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체 상대방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신임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2.11.29. 2011도7361).

올패스 구매자 전원 3개월 연장권 제공!

박문각 경찰

올패스

19년 2차부터 20년 2차 대비 가능

1년 올패스 35만원

- 올패스 3개월 연장권 제공
- 최종합격 시 수강료 100% 환급

*제세공과금 22% 제외

박문각 경찰 올패스라서 가능한
합리적 가격, 합리적 혜택으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Special Gift

지금 올패스 구매 시,
3개월 연장권 무료제공!

- 6개월 올패스 구매 시 9개월 수강
- 1년 올패스 구매 시 15개월 수강

올패스 구매자
전원 제공!



박
을
문
패
수
방
경
3
개
연
장
월
권

수강연장권 유의사항 보기 >

이벤트 세부사항은 박문각경찰온라인 www.pmg.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경찰승진시험」 형사소송법 기출해설(6)

| 조충환 교수 | 남부경찰온라인

2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검사 등이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검사 등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15.1.22., 2014도10978).
- ② 대판 2013.9.12., 2011도12918
- ③ 대판 2016.10.13., 2016도8137
- ④ 대판 2011.7.14., 2011도3809

27.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⑦부터 ⑩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⑦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시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⑧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314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⑨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⑩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조사관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도 이에 해당한다.

- ① ①(○), ②(○), ③(○), ④(○)
- ② ①(X), ②(○), ③(○), ④(○)
- ③ ①(X), ②(○), ③(○), ④(○)
- ④ ①(○), ②(○), ③(○), ④(○)

[정답] ③

[해설]

- ⑦ X: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시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위 녹음 테이프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거나 달리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8.12.24., 2008도9414).
- ⑧ O: 대판 2012.5.17., 2009도6788
- ⑨ 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판 2011.11.10., 2010도9294).
- ⑩ X: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6.2.18., 2015도16586).

28. 사법경찰 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확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③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이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④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③

[해설]

- ① 제312조 제3항
- ② 대판 2010.6.24., 2010도5040
- ③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06.1.13., 2003도6548).
- ④ 대판 2013.3.28., 2010도3359

29.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 ② 일본 세관공무원 작성의 펠로폰에 대한 범죄율검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 ③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 ④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의 메모리카드 내용

[정답] ①

[해설]

- ①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활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7.12.5., 2017도12671)
- ② 대판 1984.2.28., 83도3145
- ③ 대판 2005.4.28., 2004도4428
- ④ 대판 2007.7.26., 2007도3219는 모두 제315조에 의거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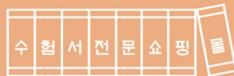
30.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 ③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인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④

[해설]

- ①② 대판 2012.10.25., 2011도5459
- ③ 대판 2005.8.19., 2005도2617
-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인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어야 한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최신교재와
다양한 혜택!

PMG 박문각

Sine 1972 검증된 공무원 합격기준! PMG 박문각

2020년대비 박문각 공무원 기본서 출간이벤트!

공무원 시험의 합격을 향한 합격 필수 도서

2020년 대비 박문각 공무원 기본서 출간~!



공무원 시험의 합격은 박문각 공무원 교재로 준비하세요~!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적립금 2배 지급!



추첨을 통해 북스파 도서할인쿠폰 및
배송비 무료 쿠폰 지급!

박문각 북스파 이벤트 2

똑똑한 공무원 입문서 무료 증정 이벤트

기출테마 100가지를 담은
국어, 영어, 한국사

북스파에서 공무원 수험생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똑똑한 공무원 입문서』를 무료로 드립니다.

신청버튼만 눌러도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쏙!
지금 신청하세요~

(국어, 영어, 한국사 중 랜덤 1종 선착순 증정)



『똑똑한 공무원 입문서 시리즈』는 공무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맞춤 교재입니다. 공무원 수험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을
총 100개의 테마로 분류해 엄선된 최신 기출 유형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초보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공무원 수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테마별 핵심 이론부터 최근 출제경향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공무원 수험생활의 초석을 다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PMG 박문각북스파

www.bookspar.co.kr | 문의 02)3489-9500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김정겸 교육학 논술 공개모의고사(3)

| 김정겸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㊂ 교육방법

- * 교사의 지시와 감독에 의한 학습
- * 계통학습
- * 교재는 교사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되고 지도된다.
- * 흥미보다는 노력을, 자유보다는 훈련을 강조한다.
- * 아동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관심을 둔다.

㊃ 교육과정

- : 전통적(교과중심) 교육과정 <상대평가>

㊄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 중등교육에 있어서 학문의 증가
- 전통교육을 중시하면서 비인간화(입시위주, 과밀 학급) 등을 초래

(3) 항존주의(Pennialism, 1930~1940년대)

② 개념

- : 진보주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현대 문명의 위기를 고대나 중세의 절대적 진리를 통하여 극복하려는 교육(과거지향)

③ 사철배경

- : 진리의 절대성과 영험성에 근거

④ 교육목적

- : 정신과 지성의 도약(훈련)

㊂ 교육내용

- : 위대한 고전 <논리적 배열>

㊃ 교육방법

- * 교사중심의 훈련과 강압

- * 인간의 본질이 불변하므로 교육의 본질도 불변해야 한다.

- * 진리에다 인간을 적용

- * 교육은 생활의 준비수단이다.

㊄ 교육과정

- : 고전중심(교과중심) 교육과정 <상대평가>

⑤ Hutchins의 항존주의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3개의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교육은 반드시 인류가 진실을 찾고자하는 것을 증진시켜야 한다. 항상 어디서나 진실이 되는 것은 진실이다. 간략하게 진실은 보편적이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 정신의 일들이 지적이고 이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교육 또한 반드시 이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간이성의 양성은 본질적인 교육의 기능이다.

- 교육은 반드시 학생들을 중요한 이념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 할 수 있도록 자극해야 한다. 교사들도 반드시 그들의 주된 교수법으로써 옳고 비판적인 사고를 이용해야 하며 학생에게 그와 같은 사고를 요구해야 한다.

(4) 재건주의(Reconstructionism, 1950년대)

② 개념

- : 진보, 본질, 항존의 입장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절충한 교육(과거지향)

③ 사철배경

- : 인문주의에 비판을 둔다. + 행동과학, 수단과 동시에 목적을 중시

④ 교육목적

- : 사회적 자아 실현

㊂ 교육내용

- : 사회적 자아 실현이 가능한 가치있는 경험

㊃ 교육방법

- * 집단활동과 집단역동을 강조
 - * 교사의 설득을 강조
 - * 학교와 향토사회간의 자유로운 교섭을 강조
 - * 다수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학습

㊄ 교육과정

- : 미래중심교육과정 <상대+절대평가>

㊅ 문제점

- : 주입식 교육을 강조한다.

(5) 진보주의와 본질주의의 비교

진보주의	본질주의
- 흥미	- 노력
- 자유	- 훈련
- 아동의 자발성	- 교사의 자발성
- 개인적 경험	- 민족적 경험
- 아동의 활동(경험)	- 과학 또는 교재(원리)
- 심리적 교재배열	- 논리적 교재배열
- 직접적 목적	- 장래의 목표

(6) 진보주의와 항존주의의 비교

진보주의	항존주의
- 가치의 일시성, 변화성	- 영구성, 불변성
- 진리의 상대성, 진화성	- 절대성, 항존성
- 실제의 변화성	- 실제의 영원불변성
- 현재생활에 충실	- 장래생활의 준비
- 현재중심적	- 미래중심적
- 생활중심교育과정	- 고전중심교育과정
- 직업적 교육	- 비직업적 교육
- 반주주주의	- 주지주의
- 물질주의, 과학주의	- 정신주의, 이성주의
- 아동중심교육	- 교과중심교육
- 자유를 중시하는 소극주의	- 형식과 내용의 적극주의

2. 평가 유형

1) 규준지향평가(상대평가)

(1) 규준(norm)의 개념

- ① 한 검사 점수는 어떤 집단의 검사결과와 비교할 때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때 비교하는 집단의 검사결과를 규준이다 한다.

- ② 개인의 점수는 어떤 규준에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2) 규준지향평가의 특징

- ① 선발적 교육관에 근거한다.

- ② 개인차 범위의 극대화를 통해 엄밀하고 정확한 측정을 시도한다.

- ③ 평가로 얻은 원점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교 척도(규준)가 필요하다.

- ④ '무엇을 얼마나 성취하였는가?' 가 아니라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에 초점을 둔다.

- ⑤ 성취결과의 상대적 서열을 판단하는데 관심이 있다.

- ⑥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강조한다.

- ⑦ 검사도구는 '표준화 검사'를 예로 들 수 있다.

(3) 장·단점

장점	단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학생의 상대적 서열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 경쟁을 통한 외발적 학습동기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교수-학습의 개선에 의미로운 측정이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학습효과 판정이 어렵다. 지나친 경쟁심 유발로 인성교육에 위배된다. 교수-학습의 개선에 의미로운 시사를 주지 못한다. 암기위주의 교육을 조장한다.

2) 준거(목표)지향평가(절대평가)

(1) 개념적 속성

- ① 준거지향평가는 구체적인 교육목표(준거)에 비추어 검사문항을 제작할 것을 강조한다.
- ② 미리 설정된 수행기준(performance criteria)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③ 여기서 말하는 수행기준은 교육목표를 뜻하기 때문에 목표지향평가, 준거지향평가라고도 한다. 따라서 '성취목표'가 평가기준의 근거가 된다.

(2) 발달 배경

- ① 규준지향평가의 개념에 근거한 표준화검사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 ② 규준지향평가에 근거한 학교의 점수체계에 대한 혼오감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 ③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동료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 ④ 동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 ⑤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
- ⑥ 교수공학의 발달이 준거지향평기를 지지하였다.
- ⑦ 교수공학의 관심은 교수목표의 구체적 진술에 있고, 이 목표는 수행의 표준이 된다.
- ⑧ 따라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미리 설정한 분명한 목표에 비추어 판단한다.
- ⑨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실패는 그들의 선천적 능력의 탓이 아니라, 교수방법의 실패에 있다는 반성이 준거지향평가의 신념을 지지했다.

(3) 준거지향평가의 특징

- ① 학생이 얼마나 성취했느냐? 보다는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관심이 있다.
- ② 대부분의 학생이 기대하는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 ③ 교육은 본래 목표를 추구하는 인간 활동이라고 본다.
- ④ 각 학습자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느냐에 관심이 있다. 상대적 비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 ⑤ 개인차는 교육의 누적적 실패에 기인되는 것이다.
- ⑥ 교육평가의 기능을 교수-학습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해한다.
- ⑦ 심리측정의 전통보다는 물리적 측정의 전통에서 다른 절대측정의 개념에 의존한다.
- ⑧ 평가 자체가 수업에 있어서 진단적·형성적 기능을 한다.
- ⑨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강조한다.
- ⑩ 검사도구의 예로 '자격시험'(예: 운전면허시험)을 들 수 있다.

SINCE 1972
박문각임용고시학원
 티치스파
전공

합격을 위한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
 되겠습니다.



2020학년도 중등 교원임용시험 대비

이율/박지훈/조영산 일반사회

**9~11월 최종 모의고사반(10주)
 : 모의고사+핵심 정리**

강좌	담당교수	강의 일정	개강일	수강료
모의고사 10회 (추석 연휴 제외하고 매주 실시)	조영산 김독	목 09:00~10:30 전공A 10:40~12:10 전공B	9/5(목)	
		* 교육학 모의고사 문제 2회 제공		
2018년 9~11월 모의고사반 제공	자율 실시	2018년 9~11월 모의고사반 11회 (오프라인 수강자는 온라인 제공)		
모의고사 해설 및 핵심정리 (10주)	사회문화교육 풀이 및 핵심정리 + 사회과교육론, 법, 정치 정답 확인 (해설은 금요일)	조영산	목 14:00~17:00	9/5(목) 65만원
	경제 풀이 및 핵심정리	박지훈	목 18:30~20:30	9/6(금)
	법 해설 및 핵심정리	이 율	금 10:00~13:00	9/6(금)
	교과교육론 해설 및 핵심정리	이 율	금 13:30~15:30	9/6(금)
	정치 해설 및 핵심정리	이 율	금 15:40~18:30	9/6(금)

* 2019년 이율팀 일반사회 종합반 2개월 이상 기수강생 5만원 할인

이율과 함께 하는 자습 및 특강 (오프라인 특강)	금 19:30~21:30	1. 질문과 답변 2. 답안작성 지도 3. 상담 4. 취약한 부분 특강	9/6(금)	직강생 무료
* 9~11월 최종 모의고사반 직강 수강생에 한함				

♣ 높은 적중율 자랑하는 모의고사 총 10회 및 파이날 핵심 정리, 그리고 관련 문제로 구성된 완벽 대비

- 2018년도 9~11월 최종 모의고사반(모의고사 및 핵심정리반 온라인 강의) : 모의고사 총 10회
- 2019년도 9~11월 최종 모의고사반(모의고사 및 핵심정리반 강의)(직강은 직강, 인강은 인강)

♣ 이율 일반사회팀 최종 파일 강의의 자부심과 자랑

1. 우수한 문제의 질과 최고의 적중률이 입증된 강의, 합격을 위한 마지막 기회
2. 강좌구성 : 우수한 모의고사, 관련문제, 중요 핵심정리로 구성된 3위 일체의 강의
3. 노량진에서 유일하게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일반 사회 교육전문가와 내용학 전문가들의 출제 문제
4. 시험 출제 경향 및 사회과 교사 양성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출제 문제

♣ 수강생 특전 : 2차 수업실연강의 2만원 할인(강의 일정 추후 공지)



「2020학년도 대비」 수학 모의고사(1)

| 이행애 교수 | 박문각입용고시학원

1차 시험	2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01. 지식 습득 및 표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잘못은 오개념 또는 오류로 분류된다. 오개념과 오류 분류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여러 가지 분류 방식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학생들의 오개념과 오류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수학은 ()가(이) 강한 학문이므로 학습 상황에서 오개념이 생겼을 때 이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수학과의 특성에서 쓰시오. [2점]**

정답 - 계통성 / 영역 - 교과 교육론

[1] 계통성

수학의 특성으로서 실용성, 추상성, 이상성, 형식성, 계통성, 직관성과 논리성, 일반화와 특수화 등이 거론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용성

수학은 실용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원래 수학은 실제 생활의 요구와 자연의 탐구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그러한 수학이 이론 수학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응용과는 무관하게 공리로부터 순수하게 수학이 전개되고 있을지도, 수학이 타학문과 실생활에 모델로 적용하고 있으며, 또 장차 적용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추상성

어떤 구체물의 집단이 있을 때, 각 구체 물이 가지는 속성 중에서 이질적인 속성을 제거하여 나기면 결국 동질적인 속성만 남게 되는데, 각 구체 물이 지니는 이 동질적인 속성을 끄집어내는 것을 추상화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성냥감, 벽돌, 상자 등이 지닌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이질적인 속성, 즉 각 물질적인 속성, 곧 공통된 성질만을 생각하면 직육면체의 개념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직육면체는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에서 추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 P, Q에 대하여 P, Q를 지나는 직선 l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유클리드의 공리는 직선을 그어 보는 경험의 추상화를 통하여 이끌어 내어진 것이다. 이처럼, 수학의 추상성이란 우리가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고, 볼 수 있는 물리적 세계나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다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대부분 추상화하여 얻어진 개념으로, 수학은 이를 개념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떠쳐 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때, 물리적 대상의 수학적 대상으로의 추상화는 특별히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원, 삼각형 등으로부터 단일 폐곡선이라는 개념이 추상화되듯, 이미 추상화된 수학적 대상이 다시 추상화되기도 한다(물리적 대상의 추상화 → 수학적 대상의 추상화). 이와 같이, 추상화의 수준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상화는 계속 이루어지기도 한다.

[3] 이상성

추상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수학적 사고 과정에서 그 사고의 대상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현상을 그 겉모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사고가 가능하도록 본질적인 요소만 고려하여 새로이 비람직한 형태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특성이다.

[4] 형식성

수학은 형식성이 강한 학문이다. 곧, 수학은 형식 언어로 쓰여진 공리를 바탕으로 하여 형식적 인 추론 규칙에 의해 전개될 수 있는바, 이 때 공리나 기호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수학의 형식성은 수학적 증명의 엄밀성과 수학 체계의 무모순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19세기 말 독일의 헤르만 카antor에 의해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형식화된 수학과 무의미한 기계적 조작은 구별된다. 무의미한 기계적 조작은 수학이 아니지만, 의미와 무관해 보이는 형식화된 수학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의미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계통성

수학적 개념의 성장을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그 기반 위에 다른 내용을 더 첨가함으로써 기초적인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일관성 있게 이어 나가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수학은 계통적이라 할 수 있다. 계통성은 수학 교육 과정의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계통성은 학습 내용의 순서를 정할 때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학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로의 확장은 바로 이러한 계통성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6] 직관성과 논리성

유클리드의 기하와 같이 수학은 엄밀한 논리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분석적이고 단계적으로 전제나 선언 명제로부터 결론이나 후속 명제가 정당하게 이끌어 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자들은 아직 부정되는 않았지만, 페르마의 정리나 골드바흐의 추측 등과 같이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한 것을 수학적 영역으로 도입하기를 꺼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대상은 사실상 직관에 의해서 발견, 발명된다. 직관은 사고 대상을 인지하는 활동이 다소 불분명하지만 전제를 감지할 수 있는 사고이며, 이론 전개의 선형, 방향, 기틀을 마련해 주는 직감적 아이디어로서 이론과 구체를 맺어 주는 것 또는 구체에서 논리의 방향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직관적 사고는 수학의 발명 또는 발견된 수학의 정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필수적이다. 논리성은 수학의 생성, 발전 과정에서 추진력의 역할을 맡아 온 것으로 수학의 내용을 모순 없이 체계화하여 질서 있는 구조를 갖춘 교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해 준다. 이에 대한 학습은 학생의 사고를 효율적이면서도 정연하게 가다듬어 세련된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7] 일반화와 특수화

일반화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고찰로부터 그 대상을 포함한 집합에 대한 고찰로 옮아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삼각형에 대한 고찰로부터 임의의 각각의 삼각형에 대한 고찰로 나아가거나, 예각의 삼각비에 대한 연구로부터 임의의 각각의 삼각함수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는 것 등이 일반화이다. 이러한 일반화를 통하여 수학이나 과학에서 많은 법칙을 발견하였으며, 때로는 단 한 가지 사실을 관찰하고도 일반화를 통하여 놀라운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한편, 나 등은 일반화와 반대되는 개념의 특수화이다. 특수화는 주어진 대상의 집합에 대한 고찰로부터 그 집합에 포함되는 더 적은 집합 또는 단 하나의 대상에 대한 고찰로 옮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화는 일반화된 명제를 검증하거나 그 증명 또는 풀이의 힌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02. 체 Z_3 위의 행렬에 대하여 연산이 행렬과 곱셈인 군 $G = \left\{ \begin{pmatrix} a & b \\ 0 & c \end{pmatrix} \mid a, b, c \in Z_3, ac \neq 0 \right\}$

에 대하여 G 의 원수를 m 이라 하고, G 에서 곱셈군 $Z_3^* = Z_3 - \{0\}$ 으로의 군 준

동형사상 $\phi : G \rightarrow Z_3^*$, $\phi\left(\begin{pmatrix} a & b \\ 0 & c \end{pmatrix}\right) = ac$ 의 핵(kernel) $\ker\phi$ 의 부분군의 개수를 n 이라 할 때 자연수 $m + n$ 을 구하시오. [2점]

정답 - $m + n = 16$ / 영역 - 현대대수학

(1) 곱셈군 $Z_3^* = Z_3 - \{0\}$ 에서 항등원은 1이므로 $\begin{pmatrix} a & b \\ 0 & c \end{pmatrix} \in \ker\phi \Leftrightarrow ac \equiv 1 \pmod{3}$ 이다. Z_3 에서 $a = c^{-1}$ 이므로 $a = c = 1$ 또는 $a = c = 2$ 이고 $b = 0, 1, 2$ 이다. 따라서 $\ker\phi$ 는 원수가 6인 군이다.

또, $m = |G| = |\ker\phi| \cdot |Z_3^*| = 6 \times 2 = 12$ 이다.

(2) $A = \begin{pmatrix} 2 & 1 \\ 0 & 2 \end{pmatrix}$ 로 놓으면 A 의 원수는 6이다. 즉, $\ker\phi$ 는 원수가 6인 순환군이다. 따라서 $\ker\phi$ 의 부분군의 개수 $n = 4$ 이다. 따라서 $m + n = 16$ 이다.

03. 멱급수 $\sum_{n=0}^{\infty} \frac{n(x+2)^n}{3^{n+1}}$ 의 수렴구간을 구하시오. [2점]

정답 - $\text{멱}(-5, 1) = \{x \in R \mid -5 < x < 1\}$ / 영역 - 해석학

(1) $a_n = \frac{n}{3^{n+1}}$ 로 놓으면 수렴반지름 $R = \lim_{n \rightarrow \infty} \left| \frac{a_n}{a_{n+1}} \right| = 3$ 이다.

(2) $|x+2| = 3$ 일 필요충분조건은 $x = -5, 1$ 이고

① $x = -5$ 이면 급수 $\sum_{n=0}^{\infty} \frac{n(-3)^n}{3^{n+1}} = \sum_{n=0}^{\infty} \frac{n(-1)^n}{3^n}$ 이므로 급수는 발산하고

② $x = 1$ 이면 급수 $\sum_{n=0}^{\infty} \frac{n(3)^n}{3^{n+1}} = \sum_{n=0}^{\infty} \frac{n}{3^n}$ 이므로 급수는 발산한다.

$(-5, 1) = \{x \in R \mid -5 < x < 1\}$ 따라서 수렴구간은 이다.

SINCE 1972
박문각임용고시학원
티치스파

전공

합격을 위한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
되겠습니다.**



풍부한 강의 경험!!

2020학년도 교원임용 시험 대비

전민식 상업교사

2020학년도 시험 대비
전민식 상업 2019년 8~9월 <3단계>
과목별 모의고사 및 핵심내용정리반

단계	강의명	강의 내용	강의 일정 계획			
			8/18	일요일 10:00~18:00	상업경제 경영학+ 마케팅 무역학 교과 교육학(론)	
3단계	8~9월 과목별모의고사 및 핵심내용정리반 (7주)	상업 교과교육학(론) · 교과내용학 과목별모의고사 및 핵심내용정리	8/25			
			9/1			
			9/8			
			9/15 ~ 9/29			일요일 10:00~18:00
			3주			회계학

<교재> 별도 프린트

[접수안내]

단과 수강료	상업경제+경영학+마케팅+무역학+교과교육론 (4주) 수강료 : 25만원
	회계학 (3주) 수강료 : 20만원

8~9월 과목별모의고사 및 핵심내용정리반(7주) 43만원
*2018년 또는 2019년 전민식 상업 종합반(8주 이상) 기수강생 41만원



「제 3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핵심문제풀이(6)

| 배문환 교수 | 박문각 강남공인중개사학원

학원 후 공법 학습은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배씨아줌마 공법" 으로 검색 후 함께합니다.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moonhwan

-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기출 제28회 수정)

- ① 놀이터
- ② 하천
- ③ 공공공지
- ④ 공용주차장
- ⑤ 공원

- 0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 제19회 수정)

- ①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해당한다.
-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03.**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등은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내용 중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기출 제25회)

- | | | |
|--------------|-----------------------------------|-----------|
|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 ㄴ. 죽목의 벌채 | |
| ㄷ. 공유수면의 매립 |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

- 05.** 구청장 등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요청하고, 정비구역 등을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사유로 틀린 것은?

- ①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준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준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 ③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④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⑤ ④호의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어야 한다.

- 07.**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준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추진위원회는 지출 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출 제26회)

- 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 ②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 ③ 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 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제외)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종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설계도서와 자금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법정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한다.
- ③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선택 & 집중

제30회 합격기준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박문각이 **답**이다

제30회 합격기준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이론 총정리 과정 **공인중개사 일일 총정리 특강**

일정	시간	과목	담당
8월 18일(일)	09:40 ~ 18:00	부동산 세법	이원우/임기원 교수
9월 1일(일)	09:40 ~ 18:00	부동산 공법	최성진/배문환 교수
9월 8일(일)	09:40 ~ 18:00	공인중개사법령	신정환/고형석 교수
9월 22일(일)	09:40 ~ 18:00	부동산학개론	김백중 교수
10월 6일(일)	09:40 ~ 18:00	부동산 공시법령	박윤모/김민식 교수
10월 13일(일)	09:40 ~ 1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수/안우체 교수

공인중개사 합격팩토리 **박문각 강남에서 준비한 추석 명절 특강**

일정	시간	과목	담당
명절특강 9월 12일(목)	09:40 ~ 18:00	부동산 공법	최성진 교수
명절특강 9월 14일(토)	09:40 ~ 18:00	부동산학개론	박성호 교수
명절특강 9월 15일(일)	09:40 ~ 16:00	부동산 공시법령	박윤모 교수

각 과목별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 핵심이론 + O, X 지문

▣ 강의시간은 09:40~18:00(시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각 과목별 저정석 접수는 8월 7일(수) 오전 08:00부터 **선행순**으로 진행됩니다.
 ▣ 저정석은 자리변경 또는 수강 환불이 불가합니다.
 ▣ 수강료 : 각 과목별 **70,000원**(교재별도)
 ▣ 수강 등록 시 복습용 **인터넷 강의** 10월 26일(토) 시험일까지 제공

QMG 박문각 고시학원 **상급 문의** 02-3476-3670

수험생 여러분의 학격을 기원합니다!

1차 집중반

👑 아직 걸고 늦지 않았다!

절.대.합.격!! 1째월 윤성!

1차 집중반 수강대상

-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
- 1차 성적이 꽉 접하지 않는 수험생
- 30회 1차 시험이 목표인 수험생

8월 1일(목) 1개월 과정 연간스케줄

부동산 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월	8월	9월	10월
09:40 ~ 13:30	09:40 ~ 13:30	과정	핵심요약	단원별 + 종합통형 모의고사	
월 수	화, 토	교재	요약집	자자 특수 프린트	

수강료 : 1개월 30만원 / 3개월 663,000원
(인터넷강의 포함/교재별도)

마감 주의

2019년 22회 2차 시험대비 **9월 28일(토)** 시험

7~9월 주택관리사

7월 15일(월) 마무리 합격반 개강

설신재 교수 **신명 교수**

7~9월 마무리 합격반
[핵심이론 + 단원별 예상 문제] + [동형 모의고사]

수강료 30만원(교재별도)
7/15(월) ~ 9/21(토) 9주 완성

요일	시간	과목	강사진
월요일, 화요일	주간 09:30~13:30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설신재 교수
목요일, 금요일	야간 19:00~22:30	공동주택 관리실무	신명 교수

QMG 노량진 박문각 주택관리사학원 T. 812-6616

2020년 23회 대비 주택관리사 합격설명회

- 일자 : 8월 10일 (토)
- 시간 : 14시~
- 장소 : 이데아빌딩 301호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
주택관리사 합격에 대한 알찬 정보를 담아가세요.

2019년 22회 2차 시험대비 특강 안내

- 단원별 모의고사 특강 (8/6 화 개강)
- 150,000원
- 관리실무 테마특강 (신명 교수님)
- 9월 예정
- 족집게 100선 특강 (관리실무 / 관계법규)
- 9월 예정

[부동산공법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①

해설)

①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해설)

③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02. 정답 ④

해설)

①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은 정비계획의 내용이다.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07. 정답 ④

해설)

④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03. 정답 ①

해설)

① 30일 이상 공란을 하여야 한다.

08. 정답 ③

해설)

① 등기를 하여야 조합이 성립된다.

②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다.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⑤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04. 정답 ⑤

해설)

⑤ 모든 항목이 허가대상이다.

09. 정답 ①

해설)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05. 정답 ④

해설)

④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

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해제사유로 옳다.

10. 정답 ④

해설)

④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하여야 한다.

06. 정답 ③

NAVER 총로박문각 **You Tube** 총로박문각

2019년 10월 26일 제30회 시험대비 **9~10월 공인중개사 합격 플랜**

보훈가족 보훈청 중개사 수강료 지원 **9월 2일(월) 개강** 명강사 명품강의 수강생이 원하는 강사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맞춤형 코스 박문각 최강의 교수진

최종합격을 향한 마지막 스퍼트!! 종로박문각이 응원합니다.

족집게로 학습!! 족집게 100選 + 동형모의고사반 (전범위)

9월 2일(월) 동시개강 오전반 · 야간반

합격플랜 시험설명회

8월 20일(화) 오후 3시
8월 23일(금) 오후 3시
8월 28일(수) 오후 3시

설명회 당일 접수생 수강료, 교재 할인
설명회 사전예약 접수(홈페이지 참조)

한가위(추석) 테마특강 민법·공법·학개론 9/12(목), 14(토), 15(일)

민법·학개론 확실히 다지기 특강 민법: 9/17(화)~10/8(화) 학개론: 9/19(목)~10/10(목) 과목별 4회 완성

9~10월 홀인원 일요하루특강 거칠없이 합격다지기!!! 최종 핵심이론 완벽정리

2020년 미리등록 수강할인 이벤트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MG 박문각공인중개사 www.pmg.co.kr | 종로학원 02)733-2288 | 온라인 02)3489-9500

망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도록, 비용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2019년 합격을 위한 마지막 기회

올패스파이널

하루 1,359원으로 공인중개사 합격까지 ??

* 1차 대비 출전 미포함 실종 판매가_2019.7.1~10.25 시험 전일까지 수강기간 기준

1회 시험부터 쌓아온 박문각의 합격 노하우!
최적의 3단계 커리큘럼,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STEP 01

그날 배운 부분은 그날 문제풀이를 통해
복습까지 끝!

빠른 이론정리 + **단원별 문제풀이**

(5~6월) 심화 이론

(5~6월) 단원별 문제풀이

STEP 02

출제될 포인트만 짚어
2단계 복습과 모의고사로 적용력 UP

빈출 논점 + **실전 모의고사**

(7~8월) 핵심 요약

(7~8월) 단원별 모의고사

STEP 03

출제경향에 맞춰진 예상문제와 실전과 유사한
모의고사를 통해 최종 약점 체크까지 끝!

최신 출제 경향 파악 + **실전 감각 극대화**

(9월) 족집게 100선

(9~10월) 동형 모의고사

이론정리와 **문제풀이**를 함께 **집중 반복**하여 이론적용과 **문제풀이 스킬 습득**!

2019년 공인중개사 합격!
박문각 공인중개사와 함께한 여러분입니다.

N수생의 합격 실력완성!

박문각 AI 확인학습 집중반

과목별 최정예 교수진의
압축 핵심강의

2개월 후
합격 실력
완성!

혁신적 자기주도 학습 솔루션

AI 확인학습

**빠른 약점발견과
확실한 보완으로
빈틈없는 실력완성!**

공무원 3% 합격률을 넘어설 확실한 선택,
박문각 AI 확인학습반입니다.

과목별 최정예 교수진



압축 이론 수업

학습효과 극대화



전용 교재와 학습펜

교수 1:1 관리



교수 밀착 컨설팅

Q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 노량진(남부고시)학원 02)815-7819

자세한 사항은 박문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